

울렁이는
지구 위에서

울렁이는
지구 위에서

문우

2023 | 겨울호 | 69호

연세대학교 문우편집위원회
변혁의 펜을 높이 들자

편집장	비상 (경영 21)
편집위원	유연 (국문 22) 아자 (철학 22) 튜브 (중문 23) 어푸 (행정 18) 데어 (문정 21)
수습편집위원	이해 (QRM 19)
역은이	연세대학교 문우편집위원회
발행일	2024년 2월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외술관 1층 문우방
디자인	이젠디엔피



올링이는 지구 위에서

어떤 마음들은 마음이 아닌데

유연

네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못된 거야?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못된 거야
못된 아이
가 되면
마음은 마음으로 있어도 괜찮아?

떨어지는 소녀들이 깔깔대고 싶다는데 좀 봐줘
자위하는 소녀들이 깔깔대고 싶다는데 좀 봐줘
200개의 주름에 빨간색을 채워 넣자는 것도 아니잖아
0시 00분 00초에 애를 낳자는 것도 아니잖아
180도에 맞춰 다리를 찢자는 것도 아니잖아
도망가지 마!
나의 폭력에서

아주 정확한 말 아주 합리적인 말 아주 세련된 말로
너의 모든 것을 이해시켜 줘
내가 엉망진창이고 논리가 없고 버려졌다는 사실
너의 모든 것을 이해할 거야
못된 마음으로
있고 싶어

그렇게 해준다면
날날이 뺏어낼게
깃털보다 무거운 심장을 하루에 세 번 마신 커피를 부서뜨린 낡은
칼날과 낡은 새 칼날을 잃어버리지 않은 펜을 길어지는 안부 인사
를 짓짱은 손가락과 잘라먹은 혀와 소화하지 못한 단어들을
욕망을

마음은 마음으로
있고 싶어

편집장 서문

문우편집위원회의 2023년 2학기 세미나 주제는 섹스/섹슈얼리티였습니다. 문우의 편집위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고민을 거듭했고, 세미나의 현장과 편집회의에서는 섹슈얼리티가 도대체 무엇이나는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섹슈얼리티를 공부하는지 묻고 일탈적 섹슈얼리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부장제 안에서의 여성의 성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HIV 감염인의 인권에 대해, 에이즈의 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의 기지촌 및 성산업 관여와, 현재의 성노동 운동 및 성노동에 관한 교차적 사유들을 고민하였습니다. 장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의 주제들로 한 학기의 세미나를 거친 뒤 모두가 이것 하나만큼은 깨달았습니다. 섹슈얼리티는 좋은 삶든 우리의 언제나 함께한다고요. 우리에게 성에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이상, 성적 건강이 존재하고 성적 건강이 필요한 이상, 성교육이 필요한 이상, 신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이상, 성관계와 결혼이 존재하는 이상, 인간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이상, 섹슈얼리티는 언제나 우리의 소중하고도 미운 동반자로 존재할 겁니다. 어쩌면 섹슈얼리티란 ‘동반자’라고 분리해서 칭하기에는, ‘나’와 너무나도 나눌 수도 없고 구분할 수도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자리에 있는 무수한 ‘나’와 함께하기에, 섹슈얼리티의 형태와, 섹슈얼리티와 각자가 관계 맺는 형태도 가지각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우의 “메인 기획 - 섹스/섹슈얼리티”에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서로 다른 글들이 실렸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페미니즘의 형태에 관해, 로맨스에 관해, 자신의 성정체성에 관해서요.

문우에서 진행된 섹스/섹슈얼리티 세미나와 비슷한 문제의식들을 공유하며 고민하는 사람은 문우가 아닌 곳에도 여럿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우는 문우가 아닌 곳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닿고 싶습니다. 문우의 눈에 실린 페스포트와의 인터뷰가 바로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이 인터뷰가 페스포트

에 애정을 가진 많은 분께 소중한 기록으로 남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우가 앞으로 이런 소중한 연결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문우의 눈에는 연세대학교의 쓰레기 문제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연세대 쓰레기 탐험대의 첫 연재글이 실렸습니다. 함께 독자모임을 진행한 015B와 연세편집위원회의 『연희관 015B』와 『연세』에 추후 연세대 쓰레기 탐험대의 활동을 담은 연재글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연세대 쓰레기 탐험대의 활동을 통해 학내의 쓰레기 문제를 더욱 구체화하고, 청소노동자와 학생이 함께 고민하며 학교 안팎의 쓰레기 문제의 맥락을 알리고 바꾸어나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

이번 호의 제목은 “울렁이는 지구 위에서”입니다. 지구는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회전의 기준이 되는 자전축마저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요동치는 지구 위라서 그런지, 사람들마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맬니다. 온갖 울렁임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울렁이고 계신가요? 그 속에서도, 음침한 곳에 숨어 자신조차도 찾기 어려운 섹슈얼리티, 있는지도 모르겠는 섹슈얼리티. 당신과 다르고도 같은 그 섹슈얼리티라는 동반자는 과연 어떻게 울렁이나요? 당신과 섹슈얼리티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그 답이 어떻든, 울렁이는 섹슈얼리티를 포함한 여러 울렁임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위의 질문들에 답을 내리고 세상에 선보이는 과정이 정상성의 입장에서 꺾이고 역겹더라도, 그 과정에 맞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울렁임이 당신을 상처 입히지 않기를 바라며,

편집장 비상 올림

CONTENTS

권두시 2

편집장 서문 4

Main Theme

섹스/섹슈얼리티

유연_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페미니스트요? 8

이해_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의 파도 아래 17

비상_ 여기, 그대로, 애매하게 23

문우의 눈

어푸_ <비행일지> 속 페스포트를 기록하다 34

데어_ 쓰레기를 찾습니다 63

활동정리

비상, 튜브, 아자_ 문우 68호 독자모임 72

편집후기 86



Main Theme

섹스/ 섹슈얼리티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페미니스트요?

유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런데 초면에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모두 페미니스트신가요? 저는 일단 그렇긴 한 것 같은데요. ‘일단’과 ‘것 같은데요’가 붙은 이유는, 저는 제가 어떤 페미니스트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즘의 역사나 계보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저로서는, 페미니즘 책이나 강연록을 읽다 보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를 비판하고 있지 뭐예요? 누구는 예코 페미니스트라니, 또 누구는 신유물론자 페미니스트라니, 스스로를 정의하고 의견을 밀어붙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일단은’ 페미니스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게 되어버린 상황에서 단 하나 확실한 게 있다면 저는 인터넷 친화 페미니스트라는 점이지요. 저와 제 친구들은 다양한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망설임 없이 구글에 검색합니다. 수많은 정보 사이를 돌아다니며 모르고 있던 부분을 채워 넣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해요. 그중 특히 트위터(현 X)를 통해 다양한 페미니즘 의제와 주장들을 접하고 자신의 주장을 발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와 친구들이 ‘인터넷 친화 트위터 페미니스트’로 정리될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불행하게도 인터넷상의 사람들 또한 모두 같은 의견으로 합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래의 트윗¹⁾을 볼까요?



그림 1 miri@komiri_study의 트윗 (https://twitter.com/komiri_study/status/1687382760812675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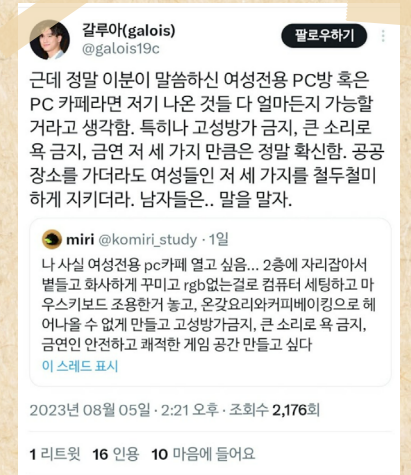


그림 2 갈루아(galois)@galois19c의 트윗 (https://twitter.com/galois19c/status/1687695194383339520?t=BQbqjSky7QBSvQ2Q53MaXA&s=19)



그림 3 (몬덴킨트KR) 道憲 고향잇과 쉬를라P@hl970226의 트윗 (https://twitter.com/hl970226/status/1685801540219740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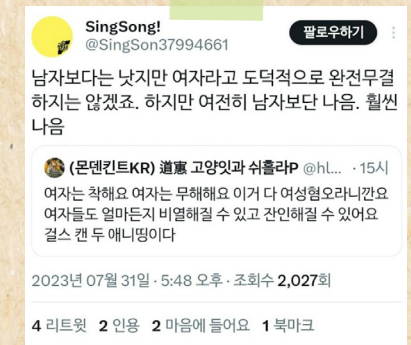


그림 4 SingSong!@SingSon37994661의 트윗 (https://twitter.com/SingSon37994661/status/1685935548916252673)

1) 트위터의 게시글을 이르는 단어.

여러분이 저와 같은 인터넷 친화 페미니스트라면 만났을 수도 있는 트윗이죠! 사실 단순히 안전에 대한 필요를 넘어, ‘여성 전용’에 대한 희망은 항상 존재해 왔어요. 그림 1의 트윗에 따르면, 여성만 있는 공간은 “화사함, 욕설 없는 조용함, 요리와 베이킹, 금연”을 약속하죠. 이뿐 아니라 많은 페미니스트가 특정한 여성성에 기반한 여성 연대, 여성 공동체를 꿈꿔 왔어요. 여성 전용 술집, 스터디 카페를 추천하는 글은 조용함, 깔끔함 등의 단어를 포함합니다. 그림 2의 트윗에서 여성 전용의 장점이라고 흔히 말해지는, 어쩌면 여성의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특징들을 명백하게 읽어볼 수 있죠.

물론 이러한 주장은 많은 반박을 받았습니니다. 그림 3의 트윗은 “착하고 무해함”, 즉 위의 두 트윗이 긍정적인 여성성으로 제시한 특징이 사실 여성혐오적인 시각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지적하죠. 앞선 두 트윗의 작성자들이 상상한 ‘안전한 여성 공동체’의 안전함은 여성에게 기대되는 ‘여성적 특징’으로 인해 구현되는데, 그 특징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여성혐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며 여성들도 남성의 특징으로 생각되기 쉬운 “비열함과 잔인함”을 탈취해 올 수 있음을 피력합니다. 그런데 말소사, 또 그림 4가 인용 트윗³⁾으로 이를 반박하죠. 그래도 여성의 도덕성은 그 최저선이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면서요. 이 대립은 끝나지 않는 도돌이표일까요? 트윗에 인용 트윗에 또 인용 트윗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이런 갈등을 끊임없이 마주하며 지친 많은 사람들은 아예 가치 판단을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네 말도 옳다, 그래 네 말도 옳다 하는 황희 정승이 된 것처럼 말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트윗이 누구의 것인지, 나나 내 친구가 팔로잉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살피기도 해요. 그리고 평소 이 트윗을 쓴 사람의 관점에 동의해 왔고 이번에도 이 사람 말이 더 적절한 것 같다고 판단하고 넘겨버리기도 하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바쁘고 인터넷상의 사소한 논의 하나하나를 고민하기엔 시간도 정신적 여유도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이 여성성에 대한 논의는 정말로 인터넷상의 ‘사소한’ 논의에 불과할까요?

앤 스니토(Ann Snitow)는 『페미니즘 속의 갈등들』(Conflicts in Feminism)이라는 책에 “젠더 다이어리(A Gender Diary)”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실었습니다. 이 글은 필자인 스니토와 스니토의 친구 A가 한 대화를 재구성하며 시작합니다. 아이를 가진 A는 “이제 나는 여자가 될 수 있고, 그건 더는 부끄럽지 않아. 이제 난 한때 내 수치였던 것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Now I can be a woman; it’s no longer so humiliating. Now I can value what was once my shame).”라고 말합니다. 이에 스니토는 깜짝 놀라며 아주 반대되는 답을 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여자가 될 필요가 없어. 여자가 되는 건 언제나 수치스러웠지만, 나는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하곤 했어. ‘여성’은 내 노예로서의 이름이고, 페미니즘은 내게 다른 정체성을 찾는 자유를 줄 거야(Now I don’t have to be a woman anymore. Being a woman has always been humiliating, but I used to assume there was no exit. ‘Woman’ is my slave name; feminism will give me freedom to seek some other identity altogether).”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여성 인권을 위해 다 함께 싸우는, 상호적으로 단단하게 결속된 집단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1990년에 미국에서 쓰인 이 글은, 페미니즘이 사실 유서 깊은 내부적 갈등의 역사를 지나왔음을 밝힙니다. 스니토는 페미니즘 안에서 갈등하는 갈래들 중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여성”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을 구축해서 강력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to build the identity “woman” and give it solid political meaning)”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이라는 바로 그 범주를 허물어뜨리고 너무나 확고한 역사를 해체하는(to tear down the very category “woman” and dismantle its all-too-solid history)” 것입니다.³⁾

쉽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 갈래는 여성성⁴⁾과 관련된 모든 성질과 모습을 긍정적으로 재규정합니다. 본래 경시되던 사랑과 창조, 감성과 양육 같은 여성화된 특징들을 폭력, 차가움, 약탈 등 부정적인 남성성과 대비시켜 여성성의 ‘진짜 가치’를 되찾습니다. 두 번째 갈래는 어떨까요? 그들은 첫 번째 갈래를 비판하며 가부장적 여성상을 부정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현실을 강조하며, 여성을 그러한 여성성에 대한 역할에서 탈출시키고자 합니다.

앞서 나열해 놓은 트윗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주 명백하게 특정 갈래로 부착시킬 수는 없어도, ‘여성성’과 그것을 소유한 ‘여성 집단’을 긍정적으로 호명하는 그림 1과 그림 2, 그림 4의 트윗은 첫 번째 갈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를 여성혐오적이라고 비판하는 그림 3은 두 번째 갈

3) Snitow, Ann. “A Gender Diary.” Conflicts in Feminism, edited by M. Hirsch and E. Fox Keller, Routledge, 1990, pp. 9.

4) 여기서 잠깐! 그럼 첫 번째 갈래는 여성성(이라고 사회·역사적으로 여겨진 것이)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여성의 특성이라고 여길까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초기 페미니즘의 경우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현재에 와선 첫 번째 갈래의 페미니스트들도 여성성이 상상된 환상, 사회적으로 구성된 이미지임을 인정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여성성’과 ‘여성’의 관계를 어떻게 짚어낼까요? 질리언 로즈는 『페미니즘과 지리학』이라는 책에서 뒤프의 글을 인용합니다. 뒤프에 따르면 ‘여성성’을 완전히 가졌다고 상상되는 환상 속 여성과 (현실을 살아가는) 보통 여성은 서로 상관없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시를 들어 볼까요? 아름다운 연예인, 광고 속의 여성 배우들은 계속해서 ‘환상’을 생산합니다. 그 환상은 보통 여성이 그러한 모습을 닮게끔 만들죠. 또 보통 여성들 또한 환상을 유지하거나 구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은 계속해서 상호작용합니다. 그렇기에 보통 여성에게 ‘여성성’이 부인할 수 없이 존재하며, 첫 번째의 페미니스트는 그것의 진짜 힘을 되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뒷글을 마저 읽어볼까요?

2) 다른 사람이 쓴 트윗을 인용해서 본인의 트윗을 쓸 수 있게 하는 기능. 인용 기능을 사용하면 타인의 트윗과 나의 트윗을 한 트윗에 넣고 볼 수 있어요!

라고요. 이처럼 넓고 범박하게 나눠놓은 갈래에는 각각 아주 다양한 의견과 세부적인 방향성들이 내부적으로 위치되거나, 가끔은 둘 사이의 교집합에 위치되기도 합니다.

스니토는 서구의 페미니즘 계보를 20세기 초반부터 후반까지 훑으며, 움뚫다가 저물고 다른 방식으로 계승되기도 한 다양한 주장들을 첫 번째 갈래와 두 번째 갈래로 분류하여 자리시킵니다. 이 주장들 중 영향력이 컸던 몇 가지는 한국의 페미니즘이 창발하는 시기에 일부 수입되었어요. 한국의 초기 페미니스트들이 서구의 페미니즘을 자국의 상황에 대입해 주장을 다듬는 과정에서도 서구의 페미니즘 역사에서와 유사한 갈등이 촉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과 여성문화운동 간의 갈등입니다.

1980년대는 본격적으로 ‘여성 지식인’과 ‘여학생’이 등장해, 페미니즘이 학술적 언어로 대학 안팎에서 연구되고 구조화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학과인 이화여대 여성학과도 이때 만들어졌어요. 이화여대에서 연구하던 이효재 교수가 본인의 제자들과 함께 여성사연구회를 설립했는데, 이들은 무크지⁵⁾인 『여성』을 발간했습니다. 『여성』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서구 제2물결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여성해방론을 주장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제2물결 페미니즘은 ‘여성’ 또한 정치적 범주이며 여성 억압은 사회구조적으로 생산된다고 주장합니다.⁶⁾ 그렇기에 이들의 목표는 여성이 법적·사회적으로 ‘평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이 ‘평등’이라는 단어는 ‘인간화’로 번역되어 한국에 들어왔어요.” 여성해방운동은 ‘모성 보호’와 ‘보육 시설’ 등을 요구하며 여성에게 부과되던 재생산 노동을 사회적인 공동 책임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여성도 사회적 노동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그리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노동하는 여성과 연대하는 『여성』은 그간 이루어진 여성운동이 지나치게 중산층 중심으로 묶이는 것을 경계하며, 여성해

방은 나아가 사회구조 자체를 변혁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여성해방운동은 성차 또한 사회적인 것이기에 성별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삶과 일을 구분하기보다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바랍니다. 여러분도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여성해방운동은 가부장적 여성상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탈피할 것을 주장하는 두 번째 갈래에 놓아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성문화운동은 어떤가요? ‘또 하나의 문화’는 대표적인 여성문화운동 갈래의 무크지입니다. 이들은 ‘여성만이’ 보일 수 있는 ‘여성의 가치’가 있으며, 그것으로 여성들이 연대하여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성문화운동과 ‘또 하나의 문화’ 편집위원들은 ‘가정주부’라는 존재에 주목했습니다. 1980년대는 남성 가정이 임금노동을 담당하고 여성 어머니가 가사노동과 돌봄을 담당하는 ‘정상 핵가족’ 구조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때예요. 여성해방운동이 가정주부이자 어머니인 여성을 ‘인간’으로 재호명하며 그에게 취업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대비되게, 여성문화운동은 모든 여성이 취업여성이 될 수는 없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며 주부는 주부의 힘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해요.

여성문화운동에서 주부의 노동은 ‘살림’과 ‘생명’으로 재가치화됩니다. 그들은 남성 중심으로 이룩된 개발 중심의 한국 사회를 비판합니다. 남성적 가치인 개발과 성장을 우선시하느라 사회는 비인간적으로 변모하였고 인권과 같은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평가해요. 그렇기에 지금껏 가정을 돌봐오고 생명을 길러온 여성들에게 진정 사회를 살릴 힘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여성문화운동의 논의를 정리하여 조한혜정은 1990년 『또 하나의 문화』 제6호에 ‘가정과 사회는 여성의 힘으로 되살려질 것인가’라는 글을 썼어요. 그는 가정주부의 노동이 지금껏 부활 노동이자 그림자노동이었기 때문에 격하되었던 의미를 다시 부각하고, 여성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주부들이 각자 고립된 영역에 존재하지 말고,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서로 단단히 연대하여 ‘공동체의 살림’을 일궈 나가야 한다고 여성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해요.⁸⁾

조한혜정은 여전히 동인그룹 ‘또 하나의 문화’(이하 또문)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21년에 쓴 글이 또문 홈페이지에 소개글로 걸려있어요. “자매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문화”는 “남성 인간중심 문명을 넘어”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인류가, 동물과 식물이 어우러진 지구생명체들이 “만물이 서로 돕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적힌 소개글에서는 1980년대의 여성문화운동의 정신이 여전히 계승되어 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관된

5) 무크지란 매거진과 북의 합성어로, 잡지의 성격과 책의 성격을 모두 가진 학술적 부정기간행물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 내용은 문학 작품부터 번역물, 소논문까지 다양했는데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대학 안팎의 연구회나 공부 모임 등에서 주로 발간하여 한국 학술장의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이 글에서 소개하는 무크지 『여성』과 『또 하나의 문화』는 당시 페미니즘 공론장을 이끌어내었고, 이들은 각각 『페미니즘연구』라는 학술지와 『또 하나의 문화』라는 여성운동단체로 계승되어 현재도 활발히 페미니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의 글은 40년 전의 페미니즘 논의이지만 전범 없는 운동은 가능할 수 없기에 여전히 현재의 페미니즘 지평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여담이지만, 이 글이 실린 『문우』라는 교지도 넓게 보면 일종의 무크지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에 발간된 『문우』, 예선 편집위원들이 외국 논문이나 소설을 번역한 글이나 그들 자신이 쓴 소논문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6) 로즈마리 퍼트남 통, 티나 페르난디스 보츠,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김동진 옮김, 학이시습, 2019, 58쪽. 해당 책은 서구 페미니즘의 이론들을 시대별로 정리하며 주장들 간 갈등을 소개하고, 각 장의 마지막엔 생각해 볼 질문들도 달아놓았어요. 이 글을 읽고 더 자세하고 다양한 페미니즘 이론들이 궁금해졌다면 해당 책을 읽어봐도 좋고, 친구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해도 재미있을 거예요!

7) 허윤,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과 번역의 역할』, 『여성문학연구』, 제28권, 2012, 241.

8) 김영선, 『1980년대 여성운동의 새로운 여성 주제 기획과 주부운동론』, 『여성과 역사』, 제28권, 2018, 241-266.

여성 정체성에 기반한 여성 연대의 생성과, 여성적 특질의 재가치화를 주요 목표로 삼는 여성문화 운동은 첫 번째 갈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

이 글을 쓰기 위해 여러 책과 논문을 읽으며 저는 어디에 설득되는지를 고민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연 ‘어떤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할지예요. 스니토가 분류한 여러 갈래들 중에서는 후기 구성주의자(poststructuralist)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후기 구성주의자는 “여성”을 만들어진 분류로 보는 동시에, 이를 “계속되는 투쟁이 있어온 담론(a discourse over which there had been an ongoing struggle)”⁹⁾이라고 여깁니다. 이들은 ‘위치성’에 주목하는데, 이때 ‘여성’과 ‘여성성’은 연구하게 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여성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즉 인종과 나이, 계급과 국적, 가족 관계와 소득 수준이 어떠한지, 나아가 어떤 시대에서 살아가는지에 따라 여성에게 요구되는, 그리하여 여성이 취득하거나 내재하게 되는 ‘여성’은 각기 다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주장과 공명하는, 가부장적 여성성을 부정하는 두 번째 갈래에 저는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범계급적 운동을 펼치는 여성해방운동도 멋진 것 같고요. 그러나 가끔은 첫 번째 갈래의 필요성에도 공감해요. 여성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의 힘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내는지 몇 번 보았고, 가끔은 그 효과적인 전략이 몹시 절실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성폭력 규탄 집회나 법제화 운동 등은 여성 연대에 기반하는 일이 잦으니까요. 나아가 ‘여성 연대’라는 개념이 페미니즘 운동적 의미가 아니더라도 제게 끌리는 것이긴 해요. 저의 많은 친구들은 여자고, 여자인 친구들과 여자로 사는 경험을 얘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 분명 즐겁거든요. 또 그런 감정이 다시 저를 페미니즘으로 이끌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때 누군가가 ‘단일한 여성’에서 묻히고 탈락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무섭기도 해요. 거주지나 사회경제적 계급과 같은 요소들이 ‘단일한’ 여성 집단을 불가하게 하는데도 어떤 ‘단일함’이 결성된다면 그것은 어떤 여성을 보편 기준 삼은 것일 텐데, 이때 또다시 보편 여성에 미달하는 여성들—이를테면 빈곤한 여성, 집이 없는 여성, 농촌으로 이주해온 여성 등—이 조명받지 못할까 봐 무서워요. 또는 여성 아닌 퀴어가 페미니즘 연대의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페미니즘의 이름을 두른 혐오로 인해 공격받을까 봐 무섭기도 해요. 이번 호에 실린 ‘여기, 그대로, 애매하게’에서도 퀴어 페미니스트의 목소리와 존재가 어떻게 ‘페미니즘’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적으로 진압당할 수 있는지

9) Snitow, Ann(1990). 앞의 글, pp. 18.

읽어볼 수 있듯이요.

이 글에서는 20세기 서구/미국 페미니즘 속 갈등하는 갈래들과 1980년대 한국에서 대립했던 페미니즘 분파, 그리고 현재 한국의 트위터상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페미니즘적 논쟁, 이렇게 공간도 시간도 다른 세 곳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갈등을 살펴보았어요. 페미니즘 속에서도 갈등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갈등을 마주했을 때 저는 몹시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뭐가 정답이지? 어느 쪽이 맞아? 여전히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그게 어떤 페미니스트인지 모르겠어요.

이 글을 처음 기획했을 때, 두꺼운 개론서와 멋진 글들을 가득 읽으면 제가 택할 ‘입장’을 확실히 정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으나, 얻은 결론은 역시 ‘완전 정답 없음’입니다. 이제 와선 당연하게도 느껴지네요. 아무것도 틀리지 않은 답이 있었다면 똑똑한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이 서구에서든 한국에서든 이렇게나 오래 논쟁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얻게 됩니다. ‘어떤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아보기 전에, 여기까지 읽어준 여러분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더 공감했나요? 무엇이 더 합리적이거나 효과적인 얘기 같아요?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여러분이 읽으며 조금 더 공감한 의견과 제가 공감한 의견은 다를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 혹은 선배와 동료도 더 공감한 의견은 다를 수도 있죠. 이때 유혹은 우리를 뒤흔들입니다. 앞서 살펴봤듯 세상엔 이렇게나 다양한 갈래들이 있고, 무엇이 백 퍼센트 맞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하나의 갈래를 택해 그것을 나의 입장으로 취함으로써 어떤 공동체에 완전히 속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쉽고 매력적입니다. 우리의 의견을 곧 나의 의견으로 하고, 우리 아닌 의견을 곧 나의 의견이 아닌 것으로 하고 싶어요. 나는 ‘어떤 페미니스트’인데 내 친구들,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 내가 팔로잉하고 있는 목록도 나랑 ‘같은 진영’이니까 무엇을 주제로든 논쟁이 발생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겠지,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나 항상 ‘어떤 페미니스트’로 살아간다면 그건 항상 무언가를 놓치고 사는 삶이 될 거예요. ‘첫 번째 갈래 페미니스트’가 된다면 퀴어나 여성 아닌 존재를 탈락시킬 수도 있겠고, 인종 혹은 계급 같은 여성들 간의 차이를 지워서 여성 집단 내에서 보편 여성이라고 여겨지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누군가는 혐오당하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갈래 페미니스트’가 된다면 가부장적 여성성을 체현하고 살아가는 여성들을 배제하거나 격하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방식으로 퀴어를 탈락시킬 수도 있겠죠.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엔 항상 옳지 않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적지 못한, 두 갈래 중 하나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진영들이 제각기 다른 배제와 탈락과 혐오의 위험성, 즉 부족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글은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 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단일한 게 보 혹은 흐름에 갇혀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때 사안별로, 의제별로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의견과 방안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속한 진영의 의견이 곧 나의 의견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어느 때엔 여성문화운동의 입장에 기반하여 돌봄 의제에 의견을 낼 수도 있고, 후기 구성주의자의 입장에 기반하여 여성 노동자에게 연대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페미니스트' 되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덜 공부해서, 덜 활동해서 아직 확고하게 자신을 특정 이름으로 정의내리지 못했다는 불안감 없이요.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논쟁과 갈등을 마주할 거예요. 학교 수업에서든 트위터에서든 다른 SNS에서든, 혹은 뉴스 기사나 칼럼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어떤 의견이든 매번 달릴 수 있다는 뜻이 될 거예요. 나의 의견이 내가 의지하는 진영과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사안을 마주한 친구나 선배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두려워 마세요. 때로는 찾고 반복되는 논쟁에 지쳐 스스로 판단하기를 포기하고 의견을 위탁하고 싶더라도, 고민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분명 '최선을 다한 페미니스트'가 될 거니까요.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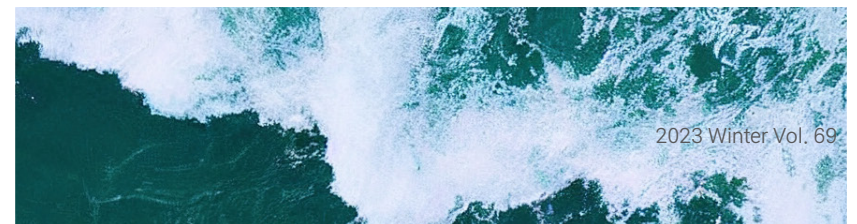
Snitow, Ann. "A Gender Diary." Conflicts in Feminism, edited by M. Hirsch and E. Fox Keller, Routledge, 1990.
로즈마리 퍼트남 통-티나 페르난디스 보츠.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김동진 옮김, 학이시습, 2019.
질리언 로즈. 『페미니즘과 지리학』. 정현주 옮김, 한길사, 2011.
김영선. 「1980년대 여성운동의 새로운 여성 주체 기획과 주부운동론」. 『여성과 역사』 제28권, 2018.
허윤.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과 번역의 역할」. 『여성문학연구』 제28권, 2012.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의 파도 아래

수습편집위원 이해

최근 방송계의 트렌드에서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장르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이란 말 그대로 '날것의' 연애를 다룬 프로그램으로, 처음 만나는 남녀가 서로를 탐색하고 특정한 상황 설정 속에서 호감을 확인하는 이성애 중심의 예능 콘텐츠이다. 과거 '짝' 시리즈로 한국에 정착했던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은 2017년 〈하트 시그널 2〉의 흥행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2022년만 하더라도 20개가 넘는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들이 등장했으며,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는 참여자의 인적사항과 그들의 '플러팅'에 대한 게시물로 가득 찼다. 이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끈 일반인들은 새로움과 친근감을 동시에 살려 '연반인' 카테고리도 연예계에 데뷔하기도 한다. 이처럼 국내 연애 예능 시장은 많은 사람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다.



대한민국에 ‘연애 프로그램 열풍’이 부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러한 ‘짜짓기’ 프로그램들이 다시금 큰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급작스럽게 도래한 국내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시장의 부흥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최근 인기를 끄는 연애 프로그램들이 화제를 얻은 요인을 살펴보면, 그 기저에 깔린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해 보려 한다. 연애 예능 시장의 성장을 단순한 방송사의 성공으로만 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2030 젊은이들의 ‘연애 생활’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진짜’: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

‘관찰형 예능’ 형태를 띠고 있는 요즘의 연애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일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 일반인 남녀 참가자들을 한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그들의 행동을 사전에 설치된 카메라의 포커스 전환을 통해 주시하는 형식이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데이트를 즐기며 각자의 감정을 발전시킨다. 예를 들어, tvN에서 성황리에 방영한 <하트 시그널 시리즈>의 출연진들은 ‘시그널 하우스’라 명명된 특정 숙소 안에서 약 한 달간 합숙하며 다른 참가자들과 교류한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이 특정한 미션을 수행하거나, 게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갖기도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연애 프로그램들이 단순한 관찰 형식으로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에서 벗어나, 그들 내면의 감정을 최대한으로 담으려 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하트 시그널 시리즈>에서는 사전에 촬영된 일반인 출연자들의 영상을 보며 ‘러브 라인’을 추측하고, 이후에 누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예측해 보는 ‘예측단’ 패널이 존재한다. 이들은 각 참가자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분석하여, 그들이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단서를 알아내려 노력한다. 정성과 전문의를 포함한 패널들의 분석을 통해, 시청자들은 그들이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추측하며 이후의 러브라인을 함께 예상해 보는 것이다. 시청자들은 이러한 추리 과정에 참여하면서 출연진들과 직접 교감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후속 인터뷰’ 형식을 채택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들도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제작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인 <솔로지옥 시리즈>는 인상적인 촬영분 사이사이에 해당 장면 속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병치하며,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와 당시의 감정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는 시청자들이 출연진의 감정과 상황에 더욱 공감하고, 그들의 만남 과정에 최대한 몰입할 수 있게 하는 연출 중 하나이다.

평균적으로 2주가 채 되지 않는 촬영 기간에도 불구하고, 연애 리얼리티 예능은 이성을 대하는 남녀의 설레는 감정을 최대한 재현하려 노력한다. 특히 리얼리티라는 장르에 걸맞게 여과 없이 출연진의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연출이 돋보인다. 이는 작년에 방영된 <환승연애 2>—이미 헤어진 연인들이 출연하여 새로운 만남(혹은 재결합)을 시도하는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 애인이 다른 이와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 장면을 목격한 출연자가 화장대 앞에서 울음을 참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끌어내 많은 인기를 끌었다. <환승 연애 시리즈>는 출연진들이 말다툼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그들의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연출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에 시청자들은 ‘내가 저 자리에 있는 것 같다.’, ‘내가 겪은 갈등이 생각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촬영 방식들은 매체 속 등장인물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 시청자들이 그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장치로서 활용되었다.

연애 리얼리티 예능들은 참여자가 본인의 감정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인터뷰 장면 및 리얼리티 특유의 현장감을 날 것 그대로 전달하려는 연출 등의 시도를 통해 ‘진정성’을 어필한다.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진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들이 출연진의 상황과 감정에 최대한 깊게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현재 유행하는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들의 출연진이 대부분 일반인이라는 점 역시 그 이유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겠다. 연애 리얼리티 예능의 소비자들은 연예인처럼 먼 존재로 느껴지지 않는 일반인들의 모습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들의 연애 과정과 감정, 갈등에 이입한다. 출연진들의 입장에 서서 본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하고, 이를 자신의 연애 경험과 비교하기도 한다.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본인의 연애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장을 마련한다는 해석도 존재한다.¹⁾ 다시 말해서,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속에서 생생하게 다가오는 일반인들의 연애에 깊게 공감하며 본인의 연애 경험과 가치관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인다. 로맨스 드라마나 멜로 영화와 달리, 연애 리얼리티 예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다.

1) 최민지, “연애 예능 전성시대, 우리가 ‘남의 연애’를 보는 이유”, 경향신문, 2022.10.30. <https://m.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210301444001#c2b>

유튜브 속에 갇힌 젊은이들의 '진짜' 모습: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바

그렇다면 최대한 '현실적'으로 연애의 모습을 보여 주어 많은 '공감'을 산다고 여겨지는 이러한 리얼리티 예능 시장의 성장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최근 도래한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전성시대'를 다방면으로 해석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연애 프로그램을 보는 행위가 꼭 시청자 자신의 연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애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이유에는 분명 설렘을 느끼고 싶다는 소비자의 욕구가 내재하여 있으나, 이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연애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애 예능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다가오는 연애에 대한 '대리 만족'의 요소로 소비되고 있다는 뜻이다.²⁾ 수많은 통계는 과거에 비해 요즘의 젊은이들이 '비연애'를 추구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23년 6월 이루어진 인식 조사에서 절반 세대(2001~2004년생)의 74%가 '현재 연애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 '한창' 나이라고 불리며, 연애 사업에 전념할 것으로 보이는 젊은 층의 단 26%만이 연애를 하고 있는 셈이다.³⁾ 작년의 '저출산 인식조사 제1차 토론회'에서 발표된 '젊은 층의 연애, 결혼, 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5%가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중 본인의 의지로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0.4%에 달했다.

자발적으로 연애를 택하지 않은 이들이 과반수를 차지함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애 프로그램들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많은 젊은이가 최대한 현실적이고 생생한 연애 예능을 추구하면서 가장 현실적일 본인의 연애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인식조사의 후속 질문인 '연애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8.2%는 '여유가 없어서'를 가장 높은 비율로 답변했다. 이는 그들이 본인의 경제적, 정서적 상황이 연애할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짚는다. '연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전성시대'에서 윤복실은 경기 침체와 부의 양극화로 인해 'N포 세대'로 위치하게 된 오늘날의 청년 세대가 연애에 따른 감정 소비를 원치 않게 되었으며, 불확실한 미래를 살게 되면서 책임을 필요로 하는 기존의 연애 관념으로부터 탈피하려 했다고 분석하였다.⁴⁾

또한,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방송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음에도 '현재 연애 중'인 커플들의 서사를 다루는 예능은 그 수와 화제성이 몹시 적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현재 인기 있는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인 <하트 시그널>, <솔로지옥> 시리즈 등은 '연애' 그 자체가 아닌, 대부분 연애를 시작하려는 남녀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최근 성황리에 진행되는 연애 프로그램 트렌드의 주축이 될 만한 단어는 '쌈'이 아닐까 싶다. '쌈'이란 아직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사귀는 듯이 가까이 지내는 관계를 의미하는 신조어다. 언급한 작품들은 현재 연애 중인 이들의 이야기가 아닌 처음 만난 이성끼리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은 매번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며, 마음에 드는 상대를 바꿔 지목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서 '최종 커플'로 이어진 이들조차 종영 이후 연애 관계로 발전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현실성과 진정성을 어필하는 리얼리티 콘텐츠로서는 다소 가벼운 끝마무리로 느껴질 수 있는 무게감이다.

다양한 연애 프로그램들이 쏟아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경계하는 시각 역시 등장하고 있다. '리얼리티'를 표방하고 있으나, 시청자들이 보는 장면은 결국 전문가들에 의해 고도로 편집된 연출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TV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화제성을 얻고 최대한 높은 시청률을 확보하는 것이다. 최근 유행하는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역시 화제성을 위해 인기를 끌 장면들을 재구성해 내는 과정에서 도리어 '가벼움'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출연자들이 함께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의 모습을 몇 주간 지속해서 보여 주고, 그들이 가진 호감을 과장하며 감정을 부풀리는 편집 기법들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또한, 연애 프로그램이 사랑을 대하는 태도가 연애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갖도록 유도한다고 보는 이들도 존재한다.⁵⁾ 연애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청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보여주기식 연애'를 추구하는 사회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⁶⁾ 리얼리티 연애 예능들이 시청자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다룬 논문들 역시 이 점을 짚는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몰입 및 지속시청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연애에 대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소비자일수록 해당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에 더 몰입하게 된다는 결론

2) 이승연, "“남의 연애에 과몰입 중입니다”...연애 프로그램 전성시대", 매일경제, 2022.10.21,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2&no=932598>

3) 박지영, "우리 연애세포 없는 초식남녀... 20대 초반 26%만 연애 중", 한국일보, 2023.06.13,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001050005835>

4) 윤복실, 「연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전성시대」, 『미디어 이슈&트렌드』 58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3.

5) 김가현 외, "연애 리얼리티 전성시대, '요즘것들'의 사랑법:", 홍대신문, 2023.03.21, <https://hiupress.hongik.ac.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8>

6) 마크로밀엠브레인, 「연애 예능 프로그램 관련 인식 조사」, 2022.03.

을 내렸다.”⁷⁾ 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의 비현실적 판타지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모든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출연진들은 철저히 수요와 공급 논리가 부여된 ‘연애 시장’의 구조 아래에서 움직인다. 은연중에 출연진의 외모와 스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누구에게도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벌칙을 받는 등 다른 이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점수 형식으로 환산된다. ‘현실’이라고 보기에 다소 어폐가 있는 모습들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 속 세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설정들이다.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의 시청이 사랑스타일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행된 설문 조사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나는 애정관계들을 꽤 쉽고도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 ‘나는 몇 명의 상대들과 사랑의 게임을 즐긴다.’와 같은 문항에 ‘매우 그렇다’를 표기한 이들의 비율이 연애 프로그램 시청 이후 높아졌다는 점⁸⁾ 이러한 콘텐츠가 젊은 층이 연애관계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의 파도 아래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연애 예능은 분명 ‘트렌디’하다. 어쩌면 이는 연애의 진중함이 주는 부담에서 벗어나 ‘쌈’이 주는 자유를 느끼고 싶은 젊은 층의 욕구를 투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합의된 가벼움을 매체로써 즐기는 행위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이들에게 하나의 위안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위적인 세트장 위에 일반인 출연진들을 배치하여 촬영한 영상들을 ‘리얼리티’라는 이름으로 송출하는 행위는, ‘현실적’이라는 단어가 주는 책임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제작진들은 방영 기간과 비교하면 몹시 짧은 촬영 기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그램 내부에 여러 연출적 장치를 설정해 두었다. 이러한 세트장 안에서 일반인 출연자들이 주고받는 호감과, 그들이 서로 연애를 ‘시작하려 하는’ 과정은 모두 시청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콘텐츠화되고 있다. 가볍게 볼 수 있는 장르이지만, 현재 연애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의 방송계에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 가볍지 않다.

7) 공유경 외,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몰입 및 지속시청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 콘텐츠학회 논문지』 23권 3호, 한국콘텐츠학회, 2023.
8) 최미경,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의 시청이 사랑스타일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여기, 그대로, 애매하게

편집위원 비상

직접적인 키워드 혐오 발언 및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으니 열람에 주의해주세요.

- 4

****중학교 1학년 비상이는 키배¹⁾를 뜨고 있다. 계정의 프로필 사진에는 둥글게 트랜스젠더 플래그가 둘러져 있다. 트위터에서 젠더퀴어²⁾임을 밝히고 비슷하게 키워인 사람들과 교류하던 비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칭)³⁾래디컬 페미니스트와 시비가 걸려 말싸움을 하곤 했다. 그날 비상이 키배를 하던 이유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이야기대로 워마드⁴⁾의 ‘워넝글’⁵⁾을 정독했는데도 그들의 이야기가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들 페**

- 1) 키보드 배틀¹⁾의 줄임말로, 인터넷상에서 텍스트를 통해 다른 사람과 말싸움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성소수자부모모임 홈페이지에 기재된 정의에 따르면, 젠더퀴어는 “‘남성’과 ‘여성’ 둘로만 분류하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Gender binary)을 벗어난 종류의 성별 정체성, 또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본문에서도 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 관련 용어”, 성소수자부모모임, <https://www.pflagkorea.org/%EC%84%B1%EC%86%8C%EC%88%98%EC%9E%90-%EA%B4%80%EB%A0%A8-%EC%9A%A9%EC%96%B4>
- 3) 본문에서 언급된 시기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페미니즘의 여러 이론적 갈래 중 ‘래디컬 페미니스트’에 해당하는 부류임을 자처하면서 성소수자나 아동 등에 대한 혐오를 자행하는 계정이 많았다. 이 글의 전반에 이러한 상황적, 시대적 맥락이 영향을 미친다.
- 4) 여성혐오에 대해 반발하고, 기존의 여성혐오적 용어를 남성 대상으로 바꾸어 말해보는 ‘미러링’을 유행시킨 메갈리아 사이트의 사용자들이 여러 사이트로 갈라져 나오며 생긴 사이트이다. 이런 분화가 발생한 주된 이유는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견해 차이였고, 워마드는 페미니즘은 ‘순수한 여성’만을 ‘챙겨야’ 한다는 일념 아래 게이,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를 적극적으로 혐오하는 사이트였다.
- 5) 워마드 사이트 내에 존재하던, ‘워넝글’이라 불리는 추천 수가 일정 이상으로 많아진 게시물을 모아두는 게시판이다.

미니즘에 '젠신병자'⁶⁾들은 딱히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다. 트랜스젠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여성인권 신장에 해가 된다고 그랬다. 비상은 납득이 안 됨과 동시에 이게 진짜면 어쩌나 싶어서 페미니즘 쪽에 누는 안 끼치고 싶은데 일단 트랜스젠더는 하고 싶은, 존재의 아픔 같은 걸 겪고 있다. 비상만이 아니라, 비상의 트위터 친구들도 모두 맨날 키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비상은 사실 페미니즘 그런 거 잘 몰랐다. 대충 좋은 거라고는 하는데 나한테 저렇게 시비를 터는 걸 보니 일단 대다수가 개새끼 같다. 비상은, 그냥 여자 할 걸, 이라는 생각을 하다가 다시 이 짜증을 분노로 풀어내며 트위터의 답글로 욕을 발사했다.

- 3

****고등학교 2학년 비상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비상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동네가 싫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비상은 메갈⁷⁾로 '각성'했다. 페미니즘 그런 거, 이제는 중학교 때보다 더 알게 되었다. 그래서 페미니즘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여러 인물에게 혼이 났다. 그래도, 교실의 반은 터프한 TERF⁸⁾인 여기서 페미니즘 동아리 안 한 게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공부를 했다. 비상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고, 교칙이 아주 엄격하여 여학생은 치마 교복만을 입어야 하는 이 지역이 싫었다. 부모님에게 자퇴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서울도 천국은 아니겠으나, 대충 다른 길이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어제는 비상의 친구가 인터넷에서 본 재밌는 글이라면서 '트랜스지규'⁹⁾ 이야기를 해줬다. 비상의 마음속에서 그 친구는 절교당했다.**

6) 트랜스젠더의 '젠'과 정신병자의 '신병자'를 합쳐 만들어진 말로, '트랜스젠더는 다 정신병'이라는 맥락으로 트랜스젠더를 조롱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정신질환에 대한 혐오를 동시에 드러내는 말이다.
 7) 메갈리아 사이트의 이용자, 즉 메갈리안'의 줄임말이다. 이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비하의 의미로 활발히 쓰이는 용어이다. 페미니스트를 조롱하고 비하할 목적으로 '메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흐름에 맞서 '#내가메갈이다'라는 해시태그가 많은 페미니스트의 SNS에서 활발히 사용된 적도 있다. 본문의 경우에도,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당시 인터넷에서의 페미니스트가 할 법한 발화처럼 드러내기 위해 해당 용어를 사용하였다.
 8) 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m 혹은 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 즉 트랜스젠더에 대해 배제적인 래디컬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스트를 뜻한다. 이 글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였다.
 9)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행한, 트랜스젠더를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성어. 트랜스젠더들은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혐오적 비난으로 "나는 내가 강아지라고 생각하니 트랜스 멍멍이다."와 같이 '트랜스'와 다른 명사를 결합한 형태로 사용된다. 현재의 온라인상에서도 이러한 합성어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 2

대학교 새내기 비상은 문우편집위원회에 들어갔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하는 데 성공하고 나서, 편견 없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동아리들에 대해 인터넷으로 조사를 거쳤고, 문우에서 집필된 글들의 주제가 제법 마음에 들었다. 심지어 동아리 소개도 다음과 같았다. “문우에서는 페미니즘, 퀴어, 노동 등 각종 소수담론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부조리를 마주함으로써, 우리 앞에 주어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갑니다.” 이곳에서는 그래도 내 정신병 가득한 머리가 좀 더 맑아지지 않을까 기대했다. 비상은 최대한 문우에서 소개해주는 여러 행사와 업무에 열심히 참여하려 노력한다. '조각보' 같은, 트랜스젠더와 연관된 단체들에 눈독을 들였다. 퀴어에 관한 이야기가 자유롭게 오가는 동아리 모임의 현장을 보며 감격했다. 차라리 퀴어 동아리를 들어갔어야 하나 싶지만, 비상은 딱히 프라이드¹⁰⁾가 크진 않아서 그냥 퀴어임을 인정해 주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동아리가 좋다고 생각했다. 휘휘 둘러보니 다들 똑똑해 보였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 1

대학교 3학년 비상은 여전히 문우를 하고 있었다. 심지어 편집장이다. 돌아보자니 나아진 게 있는데, 나아진 게 없는 것 같다. 아직도 정신병에 시달리고(물론 셸프 진단이다) 학교에 아는 트랜스젠더도 딱히 없다. 저 논바이너리¹¹⁾인데요, 라고 소개도 여러 번 하게 됐고 그리 험악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살게 된 건 너무 좋다. 또 SNS에서 TERF 유행이 지나가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다. 그래도 여전히 비상은 눈에 거슬리는 발언들을 보았고, 눈물을 흘리...진 않았고 화를 냈다. 달라진 것이라면, 지금 비상의 SNS는 중학교 때부터 수많은 가지치기와 절교를 반복하며 형성된 혐오발언 청정구역으로, 안락한 친구들로 구

10) 자부심, 자긍심 등으로도 서술할 수 있겠으나 퀴어로서의 자긍심이라는 맥락을 살리기 위하여 프라이드 플래그, 프라이드먼스 등 퀴어와 연관된 이름 붙이기에 널리 사용되는 '프라이드'라는 영어를 한국어 발음대로 표기하였다.
 11) 성소수자부모모임 홈페이지에 기재된 논바이너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이 불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남성'과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정확화하는 사람을 말한다.” 성소수자부모모임, 앞의 홈페이지.

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뭔가 찝찝하다. 살아가는데 맨날 화가 나고 짜증도 난다. 공부를 더 해서 해소하기에는, 생각보다 비상은 공부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온갖 학술적 언어가 없는 사람도 쿼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반항하고 싫어졌다. 인터넷 세상은 더럽다고 화를 낸다. 어차피 가족이나 여러 주변인에게 나는 여자다. 수술비나 모아야지, 취업 생각을 한다.

영점으로

3학년을 끝낸 지금의 나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내 정신에 많은 영향을 미친 문제적 사건들을 아직 가끔 곱씹는다. 그중 일부는 분명 나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되어 있다.

나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빨리 시작한 편이다. 트랜스젠더 여성과 트랜스젠더 남성 그리고 동성애자만 알던 매우 어려울 때의 나는 내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쿼어라는 부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묘한 갑갑함은 사라지지 않아서, 인터넷에서 이 이상함에 대해 검색을 거듭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접하고 나서야, 트랜스젠더에 여성과 남성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서야 여성도 남성도 아닌 게 내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접한 논바이너리라든지, 젠더퀴어라든지 하는 정체성은, 솔직히 “이거네!” 싶기는 했지만, 구원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냥 너무 낯설었다. 처음 접해서 그렇겠지 싶었으나, 사실 지금도 그런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 정체성은 너무 애매하다. 쿼어 이슈에 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해서 논바이너리나 젠더퀴어라는 용어를 아는 지금도, 결국은 그 뜻에 대한 이해 없이 이름만 아는 것뿐인 경우도 왕왕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들은 적이 없고, 이런 용어가 지칭하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해본 적이 없다. 당사자가 된 나조차도 그랬으니까. 심지어 나는 아웃팅¹²⁾을 당해도 심각한 수준의 불링¹³⁾을 당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게 뭔지 다들 몰랐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나에 대해 설명하기가 너무 애매했다.

12) 성소수자부모모임 홈페이지에 기재된 아웃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타인이 성소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공개하는 행위.” 아웃팅은 성소수자를 향한 폭력이자 혐오의 한 종류이다. 앞의 홈페이지.

13) 이 글에서는 따돌림 및 괴롭힘 등 오프라인상의 여러 폭력과, 사이버불링 및 신상 알아내기 등 온라인상의 여러 폭력을 두루 지칭하기 위해 불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어딘가에 속하기도 애매했다. 나의 ‘문제’는 성적체성이었기 때문에, 여자인데 여자를 사랑해서 고통받거나, 남자인데 남자를 사랑해서 고통받는다는 등의 성지향성의 문제와는 결이 달랐다. 당연히 연대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본인을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한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설명하고 서로 공감하는 것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성적체성의 ‘특이함’으로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었다. 비교적 그 존재가 널리 알려져 있는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는 지정성별¹⁴⁾과 성적체성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따지자면 논바이너리나 젠더퀴어의 경우도 트랜스젠더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가 모인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보려고 해도, 트랜스젠더 대부분은 본인을 지정성별 남성인 여성 혹은 지정성별 여성인 남성으로 정체화하고 있었다. 꼭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검색을 열심히 하기 전의 나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적체성에 대한 고민은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것 같아요” 혹은 “제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것 같아요”만 있다고 알고 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쪽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쿼어들 사이에서도 어떤 식으로 나의 존재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에 빠졌다.

그런 내가 만난 것이 2010년대 중후반 휘몰아친 온라인 페미니즘의 광풍이다. 한국의 여성들은 불이 붙은 듯 분노하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들에 이것은 여성혐오라고 소리쳤다. 인터넷상에서는 연일 온갖 혐오에 대한 고발과 저항이 이어졌다. 당시의 나는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나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도 아는 게 많이 없었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지정성별 여성인, 자신의 성별이 뭔지 잘 모르는, 그러나 인터넷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고 자연스럽게 페미니즘의 물결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당시의 대중적 페미니즘 담론이 피력하던 많은 문제의식은 나의 삶과도 크게 맞닿아 있었다. 어찌 되었든 나는 누군가 척 보 기엔, 행정상으로는, 주변인들 사이에서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절에 페미니즘의 깃발 아래 모인 엄청난 대중의 관심과 동력은 나 같은 사람까지 생각하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내가 체감하기로는, 이런 현상은 워마드 개설 당시

14) 성소수자부모모임 홈페이지에 기재된 지정성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출생 시 성기의 모양이나 형태를 기준으로 출생증명서 등 문서에 기록된 성별, 간성이나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 본인이 정체화하는 성별과 지정성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정성별이라는 단어는 간성이나 트랜스젠더가 출생 시 부여 받은 성별 분류와 본인의 성적체성이 일으키는 괴리를, 간성 및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관점에서 문제적으로 조명하고자 고안된 단어이다. 따라서 해당 맥락이 아닌 상황에서 지정성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시 용어의 남발 및 오용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소수자부모모임, 앞의 홈페이지.

극에 달했다. 내가 느끼는 문제들은 항상 특정한 형태로 상정된 여성주의라는 대의에 밀려 날 수밖에 없는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다. 혹은 헛소리였다. 여성주의를 위해서라면 퀴어 인권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트랜스젠더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말을 나는 페미니스트라 자칭하는 사람들의 글과 입을 통해 직접 들었다.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의 발화에서 여자로 인정받는 것은 인정받은 이와, 인정하는 이에게 안정감을 준다. 또한 해당 발화가 이루어지는 관계 및 공동체에도 안정감을 준다. 그런 이들의 발화에서 나는 위협을 가져다주는 적이거나, ‘우리 편’인데 단단히 착각 중인 불쌍한 존재였다.

보통 위의 흐름을 주도한 사람들은 위마드의 게시판에만 머무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떠돌며 퀴어 당사자를 조롱하고 불링했다. 이 흐름은 마치 페미니즘에 퀴어를 배제하고 혐오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듯한 인식을 심어주었고, 그 인식은 인터넷을 넘어 오프라인 세상까지 영향을 미쳤다. 당시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혐오적인 말이 공공연히 떠돌던 나의 학교는 가장 벗어나고 싶은 끔찍한¹⁵⁾ 곳이었다. 지금도, 그 시절을 지나며 혐오발언을 용인해 온 페미니스트 아닌 페미니스트들의 머릿속에는, 퀴어 혐오가 선택지로 남아 있다.

그래서 나는 또 나를 애매하다고 생각했다. 여성으로 등록되고 길러져 여성으로서의 당사자성이 있는데도,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닌’ 이야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대화에 끼기 애매했다. 내가 이 논의에 참여하는 게, 어떤 대의를 위해서는 걸리적거린다는 느낌이였다. 나는 분명 여자로서 사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알고 페미니즘이 당장 필요한 사람인데도. 그래서 페미니즘을 접한 뒤로 여러 가지 말말말을 쏟아냈지만, 나는 아직도 ‘나만의’ 의제를 꺼낼 때 다른 페미니스트들의 눈치를 본다.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퀴어를 포함한 이런저런 소수자 혐오를 지양하자고 말할 때면 솔직히 무섭다. 말해 마땅한 말이었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다들 이걸 ‘너의’ 의제이지 페미니즘의 주안점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또 불링을 시작할까 싶어서 무섭다. 그래서 모순적이게도 나는 가끔 ‘여자’로 여겨지고 싶다. 페미니즘 이야기를 할 때 묘한 눈치를 보고 싶지 않고, 사람들에게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때부터 나는 미치도록, 애매하고 싶지 않아졌다. 그래서 ‘무결한 여성주의자’로서의 본

분을 다하기 위해 여자가 되려고 노력해 보았다. 그러나 이 글을 썼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쪽에서 애매하지 않아 보려고 애썼다. 페미니스트들(정확히는 소수자와 연대하지 않는 여성주의를 꾸러나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멋진 퀴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당당하게 깃발을 휘날리고,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삶을 사는 자신감 있는 퀴어가 된다면 관찮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게 될 리가 없었다. 일단 내 정체성은, 설명해 봤자 비웃음거리가 되기 일쑤였다. 애초에 나는 그렇게 자신감이 없다. 이런 당당함을 시도할 여력도 당연히 없었다. 원래도 멀쩡하지 않았던 정신은 더 혼란스러웠다. 간신히 연이 닿은 퀴어들은 잔혹한 세상과 쏟아지는 불링 속에서 죽고 있었고 그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오래 살아 있었다. 그게 참 어색하게 느껴졌다. 어디 시위라도 나가고 하기엔, 나는 겁쟁이였고 동시에 수도권에서만 지방 중에서도 구석방에 사는 외딴 지역의 퀴어였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에 시달렸다. 이래저래 갑갑한 일들이 건강에도 문제를 발생시킨 것일까, 몸도 일 년에 몇 번씩은 쓰러질 정도로 멀쩡하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면 며칠이면 회복하는 수술도 꼬박 한 달은 누워 지내야 했다. 그런 경험들을 거듭하다 보니, 원래는 탐수술¹⁶⁾을 할까 했는데 수술 한 번 잘못했다가 언제까지 아픈 상태로 살아야 할지 무서워졌다. 탐수술을 해내고 당당하게 나서는 몸을 상상하기에는 나는 아프고 돈을 모으기도 벅차고 사실 그렇게 간절하게 수술을 원하지도 않는다.

물론 나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퀴어들을 응원한다. 그런 퀴어의 존재 덕분에 나도 위안을 얻고, 나에게 대한 마지막 긍정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 모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무력해진다. 여기서도 실패한 나는 또다시 나를 애매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동시에 그 애매함이 너무나 싫어졌다. 대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당당하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나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니 나는 프라이드를 잃었다. 예전에는 여러 퀴어 관련 용어들을 알아보고 이래저래 나에게 수식어를 붙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귀찮기만 하다. 비퀴어가 되고 싶다는 말은 아닌데, 퀴어가 아니었으면 했던 적은 아주 많다. 나의 퀴어 정체성에 관해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포용적인 자리에서도 가끔은 논바이너리라는 단어만 뱉고 대화의 주제를 빨리 넘어가고 싶다. 프라이드를 잃은 배경에는 여기에 더해, 아마도 당

15) 여담이지만, 그래서 나는 이런 무심했던 페미니즘이(혹은 그 이름을 빌린 무언가가) 남자보다는 무해했다거나, 실질적으로 소수자에게 끼친 해악이 무엇이 있느냐 등의 말을 보면 종종 화가 치밀어 오른다. 내가 그 무심함과 해악의 증인이다.

16) 유방절제술을 말하는 용어이나, 이 글에서는/퀴어와 관련한 맥락에서는 특별히 퀴어가 자신의 퀴어 정체성에 관련된 목적으로 유방절제를 시행할 때 그 수술을 가리켜 탐수술이라고 칭한다.

분간 계속해서 아픈 사람으로 살아갈, 가끔 건강하라는 말이 부담스러운 내가 있다. 또 여성주의에 맘 편히 대답하지 못하는 내가 있다. 퀴어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쌓기 힘들었던 내가 있다. 외딴곳에 살며 비웃음당하던 내가 있다. 정신과에 간절히 가고 싶은 내가 있다.

물론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말은 아니다. 힘든 순간을 버티게 해 준 고마운 유형 또는 무형의 대상들이 있었고, 지금은 살아서 대학에서 글을 쓰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나의 섹슈얼리티는 처참하다. ‘처참하다’를 풀어 설명하자면 확신이 없고, 어디 내세우기 부끄럽고, 앞으로 나에게 지금보다 더 긍정적으로 느껴질 것 같지도 않다는 말인데, 이게 최선의 설명 같으나 찝찝함이 남는, 하지만 어떻게 더 설명하기 어려운, 거북한 단어다. 정체성에 대한 공감 및 이해의 부족과, 공동체의 부재와, 혐오의 흐름과, 정신과 신체의 무너짐과, 자잘하게 설명하지 않은 여러 환경들로 나의 섹슈얼리티는 애매하고도 황당해졌다. 다들 당당해 보이고 확신이 있어 보이는 와중에 나는 구석에서 그냥 욕이나 하는 음침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다.

그럼에도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한 이유를, 아니 마지못해 살아있던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애매함 때문이었다.

나와 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가끔 나는 스스로를 애매하다고 칭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고민의 형태는 다양했다. 자신이 페미니스트가 아닌 것 같거나, 자신이 이런 퀴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거나, 여러 성별이나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자신을 이래저래 퀴어를 비롯한 타인에게도 납득시키기 어렵거나, 자신의 투쟁 아닌 투쟁의 삶이 너무나 사소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모든 고민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었다. 애매한 것은 애매하다는 그 속성 자체 때문에 존재함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존재를 어렵듯이 확인해 내는 순간들은 기가 죽은 나에게 반발심을 주었다. 애매하다면, 그래서 뭐?

사실 정체성의 모든 면에서 확신을 가지기는 쉽지만은 않은 듯하다. 그리고 그런 확신이 특히나 어려운 나와 내 주변 사람들 같은 존재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리저리 사회의 정상성에 떠밀리게 하고, 집단의 기준과 이상에 치이게 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하는 이 세상에서는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어중이떠중이가 되는 존재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발생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애매함’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꼭 퀴어 이슈와 연관되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런 애매함은 세상이 더 따스해지고 나아질수록 덜 애매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많

은 사람들에게 그런 세계가 멀게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애매한 우리는, 우리를 애매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을 헤쳐 나가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그래서 나의 경우에는 오만 생각을 다 하다가 욕심쟁이가 되었다. 안정적인 삶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융화를 위해 여자도 가끔 되고 싶고, 그렇다고 여자는 되기 싫다. 탐수술 등의 의학적 처치가 간절하고 긴급하다기보다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진정성 증명으로 의학적 처치를 ‘사용’하고 싶어 한다. 동시에 그렇게 하기에는 겁이 난다. 프라이드도 없다.

하지만 그게 무슨 죄인가? 나는 그냥 여기 있을 뿐이다. 나도 아직 나를 애매하게 만드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비책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애매하고 애매한 사람들이 자신의 애매함과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다른 애매한 존재들의 존재 그 자체와, 타인의 애매함과 마주치는 순간이 이런 삶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우리 참 애매하구나, 하면서 하하 웃거나 영영 우는 순간순간이 소중한다고 믿는다.

1, 2, 3, 숫자를 무한히 세보자

언제나 나에게 내일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내일이 있다면, 좀 살 만할지도 모르고, 아플지도 모르고, 기분이 좋을지도 모르고, 기분이 최악이라 당장 죽고 싶을지도 모른다. 언제나 정해진 것이 없다. 지금의 나에게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나 자신조차도 모르는데 미래는 당연히 더 모른다. 그래서 이토록 애매한 나 자신이 스스로 불안하다. 나의 애매함 위에 내일을 쌓아 올리는 일은 매번 힘들다.

그래도 하나는 깨달았다. 어떤 소수자성을 가졌든, 그 소수자성을 어떻게 받아들여든 내가 PC 끝판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죽어 마땅한 놈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우린 그냥 애매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애매한 삶을 대충 살아가려고 한다. 뭐 어쩌라고... 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 다만 애매한 대로 살아가는 와중에 꿈도 좀 풀어보려고 한다. 애매모호함도 언젠가는 온전히 존중받으리라는, 이 세계의 미래에 대한 희망, 나와 비슷하게 태어날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리라는 희망, 나의 10년 후가 나아지리라는 희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그것이 애매한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동시에 모두가 풀어야만 하는 무한한 희망임을 믿는다.

처음 퀴어퍼레이드를 갔던 날을 기억한다. 나는 친구들과 몰래 집을 나섰고 얼굴을 가리는 옷을 입었다. 태어나서 본 풍경 중 그날의 장면이 경찰이 제일 많았다. 그날에는 퀴어퍼레이드에서 매번 불린다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수많은 군중 속에서 불렀다. 그 노랫말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애매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했었다. 어느 정도는 그랬다. 그곳은 따뜻했고, 환대로 가득했다. 내가 여기서 무언가 확실한 존재가 되는 느낌이 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다. 경찰의 벽 저 너머에 피켓을 들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보이고, '진짜 가족'을 회복하자는 부스 행사가 보이고, 일행의 연락을 확인하려 휴대폰을 확인하니 며칠 전 인터넷에서 나의 퀴어 정체성이 가진 진정성을 두고 싸웠던 사람이 생각나고, 아주 천천히 걸었는데도 완전히 지쳐버렸고 통증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퀴어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여기에 서지 못한 나의 친구들,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몰래 길을 나선 나, 설명하기 어려운 나와 내 섹슈얼리티, 퀴어퍼레이드까지 와서 프라이드도 별로 못 느끼겠는 나. 이토록 애매해도 될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여기에서 노래 부르지 못하는 존재들도, 나도, 그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길. 애써 당당해질 필요가 없길. 애매함 그대로도 괜찮길. 여기까지 생각하니 다시 무지갯빛 풍경이 보였고, 어쩌면 허황된 꿈들도 다시 떠올려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다. 이런 이상한 날들을 살아갈 수많은 애매한 족속들에게 수시로 안부를 묻고 싶다.

참고문헌

페미위키 <https://femiwiki.com/w/%ED%8E%98%EB%AF%B8%EC%9C%84%ED%82%A4:%EB%8C%80%EB%AC%B8>

문우의 눈

〈비행일지〉 속 페스포트를 기록하다

편집위원
어푸



대학에서는 매 학기 수많은 동아리가 문을 열고 닫는다. 구성원이 계속해서 변하는 대학에서 이러한 생성과 소멸은 슬플지언정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페스포트’는 조용히 자취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닫는 전시를 열어 그 소멸의 순간을 안팎에 외치기를 택했다. 그렇게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지하 1층 무악로터리홀에서 〈비행일지〉라는 제목의 전시가 3일간 열렸다. 전시는 ‘연세대 마지막 페미니즘 동아리’가 끝내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경향신문 플랫폼의 여성 서사 아카이브 기사를 통해 SNS 등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기사에서 페스포트의 구성원들은 활동에 중지부를 찍게 된 배경으로 대학 내 백래시로 인해 페미니즘 담론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짚었고, 그럼에도 페스포트는 8년 동안의 활동으로 학내외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음을 말하기 위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전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의 이야기에는 매일같이 마주하는 차별과 혐오를 줄이기 위해 지속해온 싸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백래시가 몰아치고 활동이 불안정해지는 시기에 서로를 믿고 지탱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를 꾸리기 위한 노력도 존재했다.

페스포트가 버텨온 역사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를 안고, 문우편집위원회는 전시 첫날인 11월 30일 전시회장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전시물을 벽에 붙이고 있던 전시회장 지킴이 도요가 편집위원들을 맞아 주었다. 도요는 전시를 보면서 원하는 곳에 자신의 감정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붙이면 된다는 말과 함께 편집위원들에게 지도 핀 모양의 스티커가 이십여 개 붙어 있는 스티커 판을 한 장씩 건네주었다. 전시회장에는 ‘고양이발바닥’이라는 이름의 단과대 동아리로 연세대학교에 온 시점부터 고군분투한 시간 끝에 자리를 뜨는 시점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8년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었다. 검은색의 굵은 시간선 위로 쓰인 ‘등장하다, 싸우다, 살피다, 뜨개질하다, 떠나다’ 등의 소재목을 통해 페스포트가 어떤 굵직한 흐름 속에서 활동을 이어왔는지를 어렵듯이 짐작할 수 있었다. 소재목 아래의 활동들을 따라가다 보면 연세대학교에서 페미니즘을 화두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건뿐만 아니라 한국의 페미니즘 담론이 겪어온 변화가 고스란히 페스포트의 역사에 녹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전시회장을 나서며, 수많은 즐거운 기억이 남아 있으나 항상 순탄하지는 않았을 이 시간을 거쳐 오는 동안 페스포트가 나누었을 고민들에 호기심이 생겼다. 페스포트의 구성원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으며, 그 과정에는 어떤 크고 작은 부침과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대화가 있었고, 또 비행의 끝에서 이들은 어떤 즐거움과 아쉬움을 가지고 ‘착륙’하고 있을까? 페스포트의 울퉁불퉁한 시간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문우편집위원회의 어푸와 유연은 눈 오는 1월의 어느 날 서대문구의 한 카페에서 전시의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도요와 비누를 만났다.

연세대학교를 ‘고발’하다

어푸 / 먼저 두 분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두 분은 언제부터 활동을 하셨나요?

도요 / 안녕하세요, 도요입니다. 2016년에 페스포트 만들 때부터 함께했고 그 이후로 쪽 활동했습니다.

비누 / 안녕하세요. 제 활동명은 비누고, 18년도 입학했을 때부터 이번에 전시할 때까지 쪽 활동했었습니다.

어푸 / 전시의 초반에 이 동아리가 ‘고양이발바닥(이하 고발)’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고발 시절 초창기 회원들이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요 / 고발은 이과대 학생회를 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때가 2016년이었는데,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과 페미니즘 리부트 시기가 겹치며 학생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안 중 대다수가 페미니즘적 관점이 없으면 안 되는 사안들이었어요. 과별 회장단이나 집행부끼리 많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생각의 결이 맞는 친구들끼리 이과대학 내에서 이과대학에 필요한 페미니즘 공부를 해보자는 꿈을 가지고 3명에서 고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참깨(당시 페미니즘 자치단체)나 엘리스(당시 문과대학 페미니즘 학회)에 들어갈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단과대 단체에 쉽게 들어가기 어려워서 이과대학 내부에 남게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공동체 내에서 페미니즘 단체를 만들고 자정 작용을 시도해야 하지 않겠냐는 문제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고발을 이과대학 페미니즘 동아리로 만들게 되었어요.

어푸 / 초반에는 주로 어떤 주제의 세미나를 진행했나요?

도요 / 초반에는 가족을 큰 테마로 잡고 갔었어요. 가부장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내용을 많이 다루었고, 그것과 함께 이과대학 내의 여성혐오나 차별에 대한 성찰 이런 식으로 주제를 가져가면서 일상적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다시보기를 주로 시도했어요.

어푸 / 확실히 낯설게 보기 같은 것이 초반에 필요한 활동이었을 것 같아요. 페미니즘 안에도 정말 많은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고발로 처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는 이런 관점의 차이는 없었나요?

유연 / 페미니즘을 공부한 경험의 차이가 있었는지, 모두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요 / 후자에 조금 더 가깝긴 했어요. 페미니즘을 접해본 정도가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나지는 않았고, 예민한 정도는 조금씩 달랐죠. 그럼에도 하고 싶어 했던 것, 만들어가고 싶었던 공동체에 대한 지향점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동아리를 만들어야 하고, 만들어가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차이가 좁혀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푸 /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해보자”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단체가 유지되기 쉽지 않은데도 고발이 계속 이어진 게 놀랍네요.

도요 / 2016년이었기 때문에 강한 목표 의식이 있었죠. 그때 사건이 너무 많았어요.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단톡방 성희롱 사건도 2016년에 터졌었거든요. 지금 뭘 해야 하는지나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감각이 서로 비슷해서 그게 동력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로 편한 사이이기도 해서, 외적인 동력이 없었다고 해도 만나서 같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유연 / 이과대학 페미니즘 동아리라고 하면, “이과대에서? 힘들겠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이과대에서 페미니즘 동아리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이나, 고

발이 이과대 동아리로서 지나는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었나요?

도요 / “이과대학 내에서 페미니즘 동아리라니 힘들겠다.”라는 문장이 사실 이과대학 내에 페미니즘 동아리가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문장이잖아요. 저희도 그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욕을 먹든 안 먹든 간에 뭘 많이 발산해 보자, 의제를 많이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게 이과대학 동아리로 있을 때 당시의 오픈 세미나 주제들, ‘이과대학 내 여성’ 그리고 ‘세상에는 이런 과학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들이었고요. 구체적인 장면들을 지적하려는 시도도 많이 했었어요. 이과대학 내에 기본적으로 과학만능주의가 팽배해 있었거든요.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지만 과학은 가치중립적이고 이성적이며 객관적인 학문이다.” 같은 분위기. 특별한 악의가 있는 학생들이 뭉쳐서 이과대학에 진학한 건 아닐 텐데, 1학년부터 그런 분위기에서 지내다 보면 본인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 단단하게 굳어진 분위기를 깨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고, 과학도 결국 패러다임일 뿐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2010년 중반 무렵까지 과학관에 여자 화장실이랑 여자 샤워실이 없었던 적도 있어요. (여자 화장실이) 1층에만 있고 2, 3, 4층에는 없다는 거, 장애인 화장실이랑 같이 있다던 거. 2016년까지 2017년까지 “우리 대학원에는 여학생 못 온다.”라고 말한 교수도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이과대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과대 부학장이 “여학생들은 임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교수들이 제지도 안 하고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런 것을 문제화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어푸 / 이런 문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도요 / 당시에는 교수들에게 면담을 통해 항의하든가, 학생회 측에서 성명 발표를 하든가 하는 방식을 택했었죠.

어푸 / 이런 대화 시도도 그렇고, 활동 전반에서 오픈 세미나나 오픈 영화제 같이 동아리 외부의 사람들을 만나려는 활동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지향도 이과대학을 자정하고자 하는 필요에서 출발했는지 궁금해요.

도요 /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본받고자 했던 단체가 참깨랑 엘리스였는데, 엘리스가 조금 더 학술적인 분위기였고, 참깨는 조금 더 실천적인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둘 다 잘 이어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그것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페스포트의 전신인 고양이발바닥이 이과대학 내부에서 싹튼 배경에는 학내외의 여성혐오 사건들이 큰 동력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은 2016년 강남역 인근에서 여성을 표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로, 범인의 여성혐오적 발언이 보도된 직후 SNS에서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분노와 안전에 대한 불평등한 감각에 대한 증언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이 강력한 정동은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추모 공간을 마련하거나 집회를 여는 것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애도의 움직임으로 표출되었으며, 불평등과 위험에 대한 감각이 널리 공유되는 과정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대중적 관심 역시 증폭되었다.

페스포트의 초기 구성원들 역시 당시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출발했다. 페미니즘의 필요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움직임에 나설 수 있었던 시대적 맥락에서, 여성혐오를 인식하기 시작한 이들이 학내 문제에 주목하며 주변을 바꾸고자 “당신의 일상이 불평등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꼬집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에 학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페미니즘 공동체들의 지향점을 귀감으로 삼아, 페스포트는 특히 초기 구성원들이 속한 이과대학 내의 여성혐오를 지적하는 오픈 세미나와 영화제를 진행하는 등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의 장을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

1) 페스포트 페이스북 페이지, “안녕하세요. 이과대학 페미니즘 학회 고양이발바닥입니다.” 2016.10.04., <https://www.facebook.com/yfemipassport/photos/pb.100071164628214.-2207520000/306618599712897/?type=3>.

다채로워진 고민의 갈래들

〈비행일지〉 전시회장의 벽에는 그간 진행한 세미나의 발제문부터 함께 작성했던 대자보, 외부 활동에서 활용한 포스터, 활동사진 등 페스포트의 역사를 담은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초기 페스포트의 세미나는 정상가족이 데올로기에 질문을 던지고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질문하는 등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젠더와 관련한 불평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활동이 지속될수록 그 주제가 점점 다양한 고민으로 시선을 넓히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018년 가을에 열린 세 번째 오픈 세미나 〈a stray〉의 포스터에는 ‘게임 문화 속 여성혐오와 게임 속에서 재현되는 젠더 롤’과 같이 페미니즘적 낯설게 보기의 차원에서 친숙한 화제가 있는가 하면, ‘페미니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난민혐오’와 같이 당시 한국의 페미니즘 담론에서 논쟁적이었던 주제가 등장하기도 했다.

어우 / 전시회를 따라가며 페스포트에서 세미나 등으로 다루는 주제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다양해지는 걸 느꼈는데요. 페미니즘을 통해 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을 넓게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폭 넓은 화제를 다루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유연 / 처음에는 페미니즘 공부로 시작했던 동아리 활동이 나중에는 게임 문화도 다루고, 2023년에는 도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BDSM과 퀴어에 관한 발제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장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비누 / 제가 고발에 들어왔을 때는 이과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다양한 학과에서 다양한 친구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부분, 좀 더 전달하고 싶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주제가 많아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 이슈가 되는 것들, 아니면 우리가 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

지고, 알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그렇게 주제가 다양해진 것 같아요.

도요 / 저는 공동체 담론 자체가 성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전시 기획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전시 기획하면서 세미나 주제를 일렬로 짝 나열해 보니까 가족에서 시작해서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고민이 쌓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계속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또 재미있는 게, 회의록 정리를 하다 보니까 2016년에 “우리 나중에는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회의록에 써 두었던 것을, 한 2020년 2021년에 실제로 했더라고요. 회의록을 봐서 꺼내온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흐름을 정리해서 다시 보는 게 너무 좋았고, 그게 성장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누 / 그 시간을 거치면서 단체도 성장했고 개인도 성장했던 것 같아요.

도요 / 저는 페미니즘이 개인한테 해방의 언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가족이나 가부장제 같은 주제는 사실 학문적인 느낌으로 공부했던 게 강했던 말이에요. 근데 개인이 동아리로부터 해방의 언어를 계속해서 습득하다 보니까 자기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싶었던 주제들을 나중에 가면 더 꺼내놓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개인이 발제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가 커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이름을 변경하며”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과정이 곧 해방의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음은 2019년 말 동아리가 ‘페스포트’로서 새롭게 출발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페미니즘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다양한 권리 의제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고, 비인간 중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비거니즘이 페미니즘과 닿아 있다는 인식은 곧 ‘고양이발바닥’이라는 동아리명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고발’로서 쌓아올린 동

아리의 기틀을 되돌아보고 다시 만들어나가는 이 결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났을까?

어푸 /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볼까요. 사실 저는 이과대학 페미니즘 동아리를 고발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페스포트라는 이름만 듣고는 어떤 동아리인지 몰랐는데, 누군가가 “(페스포트가) 고발이야.”라고 해서 놀랐던 말이에요. 동아리 이름을 바꾼 일에 대해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전시에도 “동아리 이름을 변경하며”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된 결정에 대한 글이 붙어 있었는데, 그 뒤에 더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유연 / 기존에 동아리 내부에서 그런 관련 논의나 세미나가 오래 있었던 건지, 활발하게 있었던 건지도 궁금하고, 이견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성원 간에 어떻게 조율했는지도 궁금해요.

도요 / 사실 당시 고발에서는 동물권 관련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동물 먹으면 안 된다, 우리 이 이야기 더 해야 되고 고발 이름 진짜 이상하다.”라고. 고발이라는 이름을 같이 만들었던 입장에서 좀 낯부끄럽긴 했지만요. 오픈 세미나 때도 동물 대상화란 무엇이며 고양이 발바닥이란 이름이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해 한 꼭지 발제를 했었거든요. 19년도 한 해 내내 비거니즘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19년 끝날 때 “자 이제 바꿔볼까?”라고 제안했습니다.

어푸 / 1년 동안 관련된 논의를 계속 제시한 거네요.

도요 / 저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고 말을 하는 편이 에너지가 훨씬 충전이 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고발 이름 같이 정했던 친구들한테도 나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고, 아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과정이 아주 바람직했다고는 기억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아리명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같이 고발을 만든 친구도, 바꿀 거면 “우리가 고양이발바닥으로 10년 활동한 다음에 바꾸는 것보다 지금 바꾸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나는 바꾸는 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권리 사안이니까요. 특별히 악의를 가진 사람이 고발에 없었고, 다들 공감하고.

어푸 /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에 그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권리에 관련된 사안이기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옳지 못”²⁾하다는 말을 보고, 총여 폐지 학생 총투표 때문에 나온 말일까 싶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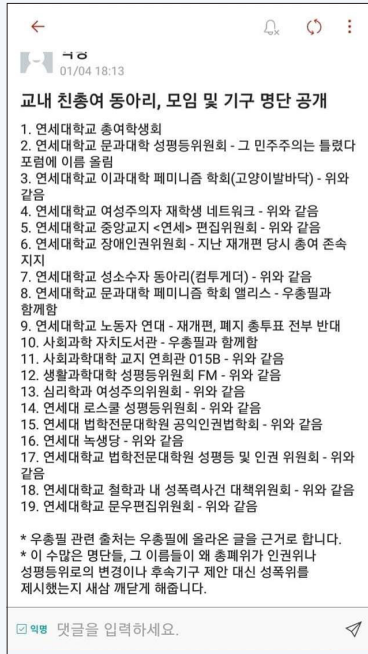
도요 /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작정 투표를 진행했다가 반대가 많으면 어찌저 싶기도 했고요. 그럴 리는 없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여 폐지 이후에 학내 모든 단체에서 인원이 몰려서 당시 고발 인원이 서른 몇 명이었던 거예요. 개개인하고 합의가 됐어도 투표를 올렸을 때의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고, 그런 분위기로 결정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변경의 건을 설득해내기 위해 내가 열심히 긴 글을 써야겠다 생각했고, 아주 긴 글은 아니었지만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써서 종강총회에 가져갔죠. 총회에서 이 사항을 의결한 뒤에 논의한 내용을 글로 써서 공지방에 안내해서 바꿨고, 그때는 그게 제일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2) 페스포트 페이스북 페이지, “〈동아리 이름을 변경하며〉,” 2020.01.28., <https://www.facebook.com/yfemipassport/photos/pb.100071164628214.-2207520000/1012172622490821/?type=3>.

백래시³⁾를 맞닥뜨린 2018년

페미니즘 담론이 누적되고 다양화되며 공동체가 성숙하던 시기, 다른 한편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세를 불리고 있었다. 2018년 5월, 총여학생회(이하 총여)에서 주관한 제2회 인권축제의 연사 초청에 대한 비난과 방해 움직임이 이미 대학가에 퍼지고 있었던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에 힘입어 조직적이고 집합적인 행동으로 불어나게 되었다. 이후 약 반년에 걸쳐 총여에 대한 퇴진 및 재개편 요구, 총여 폐지 및 관련 규정 파기, 후속 기구 신설의 안에 대한 학생총투표 등 학내에서 여성주의 자치단체를 몰아내기 위한 사건이 몰아쳤다.

이에 학내외의 많은 공동체가 자보를 쓰고 연서명을 하는 등 총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연대 활동을 전개하며 백래시에 맞서 싸웠다. 이 과정에서 총여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적 가치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주로 익명 플랫폼인 '에브리타임'에서 높은 강도의 공격과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학내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반감은 온라인상에서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직접행동을 통한 자치활동 방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노골적인 형태의 백래시⁴⁾였으며, 이는 많은 단체들의



연세대학교 에브리타임 익명 게시물, “교내 친총여 동아리, 모임 및 기구 명단 공개,” 2019.01.04., 자료 제공 페스포트.

3) 사회의 진보나 변화에 대한 반발 또는 반동을 의미하는 용어로, 한국에서 메갈리아 등의 사건으로 페미니즘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후 페미니즘에 대해 온·오프라인상에서의 공격이 가해지고 이러한 경향이 심해지는 것을 백래시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4) 이소윤, “총여학생회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2018.12.03., https://www.ohmynews.com/NWS_View/View/at_pg.aspx?CNTN_CD=A0002492450.

지속과 재생산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페스포트(당시에는 고양이발바닥) 역시 “친총여 동아리, 모임 및 기구”로 지목된 단체 중 하나였다.

어푸 / 다음 질문으로는 2018년 학내 상황과 당시 공동체에 대해 여쭙보려 하는데 요. 저에게 2018년은 막연히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페미니즘 동아리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인권축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그게 견잡을 수 없이 커졌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뿐 아니라 제가 있었던 동아리를 포함해 많은 단체들도 침체기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발은 그 시기를 견디고 지나온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비누 / 그러게요. 저도 18년에 입학하고 동아리에 들어간 지 한두 달 된 상황이었는 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5월 이후로 6월에 학기 마칠 때까지의 기억이 거의 없고, 사람들이 계속 성명을 내고, 총여도 우송필(우리에게는 총여학생회가 필요합니다; 총여학생회 재개편 요구에 반대하는 학생과 졸업생 등이 조직한 연대체)도 계속 자보를 생산하듯이 쓰고, 저는 송도에 있으니까 증도에 대자보가 붙은 것, 플랑이 찢어지는 일들을 사진으로 보고, 그때는 페이스북 그룹 등지에서 친구들이 총투표나 총여와 관련한 글을 실어 날렸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대응할 만한 힘이 남아 있는 신입생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송필이나 다른 단체의 글들을 이거 보란 듯이 실어 나른 기억이 있어요. 그때 고발이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그때는 아직 싸울 만한 힘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총여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그때 활동하는 부원들이 대부분 17학년, 18학년이었고, 정확하게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만 무력해하면서도 화내야 할 것에는 화내고, 저희끼리 으쌰으쌰하면서 잘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만 어렵듯이 나요.

어푸 / 저는 아직도 그 시기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이렇게까지 소진될 일이었나”라는 생각과 “그 시기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항상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다른 단체의 상황이 정말 궁금했어요. 도요님은 기억이 나시나요?

비누 / 18년도에는 저희 둘 중 저밖에 없었어요.

도요 / 저는 18년도에는 군대에 있었다가 19년도에 동아리에 돌아왔거든요. 그때 저를 싫어하는 군대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공격했고, 반대로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저에게 질문 공세를 하거나, 충여가 왜 필요한지 대신 설명해달라는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저에게 외주 맡겼거든요. 그런 일에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동아리에 돌아오고 나서는 뭔가를 하는 게 훨씬 더 저의 정신 건강에 좋았어요. 내가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에너지였고,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훨씬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동력 중 하나였어요.

비누 / 맞아요. 총여 사태를 겪고 18년도를 지내면서 많이 무기력했고 힘들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해를 버텨낸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기서는 이해해 주고, 인정해 주고, 대화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서서히 이 공동체에 애착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인권축제 전에는 말도 거의 안 놓고 같은 학번끼리도 어색하게 인사하는 사이였는데… 힘든 시기를 같이 겪어서 친해졌고, 그것을 바탕으로 19년도에는 “한 번 힘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열심히 해보자” 하고 도전도 했죠. 전시회에는 제가 실수로 못 넣었는데 〈페스티벌 킱〉이라고,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주최한 페미니즘 축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부스를 신청해서 외부 활동을 진행했어요.

도요 / 함께하는 게 에너지였어요. 2019년에는 생일 파티도 하고 그랬어요. 동아리에서 매월 “4월 생일자들 모이세요”, “5월 생일자들 모이세요” 해서 생일 파티 열고. 그것도 되게 큰 동력이었던 것 같네요.

어푸 / 그렇다면 사건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단체의 입장에서 끝내 총여 폐지 총투표가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궁금해요. 폐지라는 사건이 당시 학내에서 여성주의에 입각한 자치 활동을 하고 있는 공동체들에게는 어떤

영향, 또는 의미였나요?

도요 / 일단 저한테는 총여학생회가 믿을 수 있는 연결망이라는 점이 제일 중요했어요. 총여에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을 때 다른 단체와 연결시켜줄 수 있고, 총여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남아 있을 거라는 안정성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는데, 총여가 없어진 이후를 생각하면 정말 단체들끼리 알아서 연대를 해야 하잖아요.

유연 / 지금 진짜 그래요.

도요 / 페스포트를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도요. 총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름을 바꾼 이후에 동아리 바깥의 사람들이 페스포트까지 연이 닿기 쉽지 않았거든요. 총여가 있었으면, “여러분 모이세요” 하면 관련 단체들이 모일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게 느껴져요. 물론 총여가 갖는 의미는 훨씬 더 크고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뭔가를 하고 싶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게 되었다는 점, 어려워졌다는 점.

비누 / 저는 18년도에 페스포트 말고 생활과학대학(이하 생과대) 성평등위원회를 했었는데, 18년도 총여 사건 이후로 활동 인원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원래 생과대 성평등위원회도 그 전 생과대 학생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곳이라서 전 학생회장의 지인들, 학생회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생과대 성평등위원회에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온 사람들 중 다수가 총여 사태 이후로 떨어져 나가고, 19년도에는 거의 활동 인원이 남지 않게 됐어요. 사람을 모으려고 해도 총여가 없어진 상태에서 학교의 여론이 이렇다고 썩기가 박혀버린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단체에 가입하기 쉽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에 들은 거지만 과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그때 페스포트든 생과대 성평등위원회든 들어가고 싶었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당장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내가 효용이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여 단체에 들어가기 무서웠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개개인한테도 총여

의 부재가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유연 / 확실히 그 직후에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공동체에 들어가기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어푸 / 저는 1학년 때 다른 동아리를 하나 했었는데, 같이 활동할 때 에타에서 그거 (총여 사건 관련 게시물) 봤냐고 낄낄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틈에서 불안한 느낌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페미니즘 동아리에 속해 있다는 걸 알면 어떡하나 막연히 불안하고, 총여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당연하게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도 불편하고. 그런 불안정한 상황 자체가 여성주의 기반 단체의 활동과 조직의 많은 기틀을 흔드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백래시 이후, 이어나가고 버티나간 시간들

유연 / 페스포트가 활동을 하는 과정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굴곡들이 있었다면 어떤 굴곡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비누 / 저는 18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해의 오픈 세미나로 총여학생회 사태를 다뤘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주제 때문인 것도 있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고 19년도까지도 많이 왔는데,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저희는 그동안 항상 오픈 세미나나 다른 인권축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교내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19년도 말에 이름 딱 바뀌고 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나갈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 것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뒤에 전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 같아요.

어푸 / 전시회에서 페스포트의 활동을 쫓 따라갔을 때, 20년도에 이르러서 타대 성폭력 이슈나 n번방, 사법부나 에타에 성명문을 쓰는 활동들이 눈에 띄었는데. 총여가 사라지고 학내 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페스포트가 학교 바깥의 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학외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도요 / 말씀하신 대로 학내 활동이 거의 죽다시피 했었고. 그 상황에서 페스포트의 이름으로 외부 활동에 서명하는 것 말고는 그렇게 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던 거죠. 동아리 하나로서 힘을 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어서, 큰 단체 활동에 여러 단체가 모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기억해요. 내부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백래시가 심해서 사람이 안 모이는 게 컸어요. 그 점이 좀 아쉽죠.

어푸 / 19년도와 20년도 무렵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비누 / 줌 회의도 시도해 보고 코로나 시기에 신입생들 어떻게 모집해야 할지, 어떤 세미나를 진행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그게 잘 실현되거나 지속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일단 줌 회의부터 오는 사람들이 들쭉날쭉하고 그래서.

도요 / 줌 켜놓고 아무도 안 와도 할 겁니다. 했습니다. 회의 공지 올리고. 혼자 줌 화면 켜놓고 앉아있고. 꾸준히 활동을 했다는 역사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버텼어요.

비누 / 혼자만 앉아있거나 둘 셋만 앉아있거나... 오늘 뭐 했는지 이야기하고 30분 있다 끄고 그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었고.

유연 / 그 시기의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 건가요?

도요 / 주로 줌으로 근황 토크를 했죠. 서로 근황을 들고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심리적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다른 동아리는 4명씩 모임 개최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저는 코로나 때 거리두기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중요한 가치적인 문제라 생각해서, 4명씩 모이면 모임 수 있는 건데도 ‘우리 이거 잘 지켜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온라인 모임 위주로 진행했어요. 동아리 살리자고 4명씩 모였다가 저희가 걸리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죠. 속상했어요.

유연 / 코로나를 거치면서 단체 재생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신입 회원에 관한 논의와 단체 재생산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요 / 사실 저희는 재생산에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비누 / 한참 구성원이 고여 있다가 신입 부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21, 22년도쯤. 그리고 그때 들어온 사람들마저 졸업했거나 편입하신 분이거나 저와 같은 학번이거나.

도요 / 재생산은 단체의 노력으로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운이 크고. 저희도 어떤 테마로 동아리의 활동을 가져가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활동을 할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죠. 대외활동을 하면서 사회변혁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내부의 안전한 공동체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2016년부터 계속했었는데요. 그때는 둘 다 가져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2021년에 동아리를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가고 싶은지에 대해 논의할 때는 안전한 공동체를 꾸리는 게 우선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그 면에서 보면 저희는 잘 한 것 같기는 해요. 그 논의 이후에 2022년과 2023년의 활동은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안전하고 편안한 공동체 꾸리기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있는 요인은 아니지만, 너무 보람차고 만족스러운 활동과 시간이었

고 하고 싶은 것을 잘 했냐고 물으면 잘 한 것 같아요. 이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하고 전시를 준비할 건지, 아니면 한 학기 더 버텨볼 건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지금 잘 마무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재생산을 해서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끼리 지금 즐겁게 잘 놀고 즐겁게 잘 마무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재생산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는 않았고, 그런 면에서 그 이후가 만족스러웠어요.

비누 / 오히려 부담이 덜어진 느낌? 물론 저나 도요도 동아리 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한 만큼 슬프긴 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언제까지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졸업하고 이 친구도 졸업하고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깔끔하게 그냥 끝내기로 결정한 게 지금 돌아해보면 그때 되게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요 / 전시회 축사를 해 준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동아리가 있어서 어쩔고 없어서 어쩔고가 아니고 동아리라는 건 원래 필요하면 생기는 거고, 그 당시에 필요한 사람들이 없으면 이제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 자체가, 재생산이 안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일이 아니고, 당시에 동아리가 필요했던 사람들끼리 서로 잘 지냈으면 충분히 괜찮은 거라고 했는데, 저희한테는 그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어푸 /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비누 / 어떻게 하자는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불편한 요소들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불편한 요소들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했죠. 그렇게 되려면 서로 친해져야 되고 알아가야 되니까 같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마련했던 것 같아요.

도요 / 저희 뭐 했죠? 전시회 같이 가고, 영화 보기, MT 자주 가기.

비누 / 사소하게는 모일 때마다 근황 나누는 것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친해지고 나서 서로 알아가면서 무엇을 불편해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가고, 그런 것들을 서로 존중해 주고 이야기하고 조절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단체가 됐던 것 같아서.

도요 / 저희 마지막에는 페미니즘에 그렇게 집착 안 했던 것 같은데. (웃음) 근데 그것도 좋은 점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말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페미니즘 이야기 좀 해볼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모두에게 편하거나 쉽지는 않잖아요.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고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고 그것이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끼리였다는 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걸 잘 이뤄냈다고 생각해요.

유연 / 마지막엔 어떤 목적성을 가진 동아리라기보다는 정말 공동체에 가까웠네요.

도요 / 그렇죠. 2017년에 세미나를 하면서 나왔던 질문, “고양이발바닥은 가족을 대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에 답해보자면, 가족을 대체할 공동체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분명 각자한테 필요한 공동체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누 / 되게 좋은 공동체였어요 저한테는.

도요 / 저한테도 그래요. 아, 그리고 저는 저희 부원 중에 한 친구가 전시회의 일지에 “특별히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동아리에 들어온 건 아니었다.”라고 썼잖아요. 그거 보고 너무 웃겼는데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도 생각했거든요.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페미니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뿐이지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과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비누 / 저희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신년 만두 굽기 모임 이런 거 하고.

도요 / 말복에 모여서 말랑 복숭아 먹기도 했어요. 말랑 복숭아 엄청 많이 사서 둘러앉아서, 꺾는 사람 빼고는 다 좋았죠. (웃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외적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버텨내는 것이 2019년경 페스포트가 유지될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면, 동아리명을 바꾸자마자 들이닥친 팬데믹은 그 에너지를 심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좀 회의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활동을 이어나가고 그 기록을 남기고자 했던 노력은 팬데믹 이후 다시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인원 충원 등의 어려움을 겪는 활동의 막바지까지 페스포트는 함께 무언가를 하며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집중했다. 대선 뒤풀이 진행, 10.29 참사 이후 이태원에서의 엠티 진행과 해방촌에 대한 공부, 강남역 7주기 추모 활동, 크리스마스 파티와 신년 만두 빚기 모임을 진행하는 등, 사회와의 재연결을 도모하며 그 과정에서 공동체를 다시 끈끈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전시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실천 활동을 어렵게 하고 불안한 감각까지도 유발했던 많은 사건을 지나오며 공동체로서 외부의 무언가를 바꿔나가는 것만큼이나 내부적으로 즐겁고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구성원을 돌보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그렇기에 동아리의 끝맺음 역시 단순한 실패로 감각되지는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비행일지〉 자세히 보기

어푸 / 전시회에는 사람이 얼마나 왔나요?

도요 / 저희 150명 좀 넘게 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전시 관람객들한테 나눠 줄 스티커를 100장 뽑고 이것도 많을까 걱정했는데 전시 이틀째에 다 떨어진 거예요. 좋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마지막 날에 오시는 분들은 콘텐츠가 없는 건데... 그리고 저희가 받았던 관심 중에 제일 규모가 큰 관심이

어서, 끝날 때나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좋으면서도 약간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푸 / 에브리타임에 홍보글을 올렸을 때 비난 여론과 폭력적인 댓글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시에 불만을 표하거나 방해하려 하는 관람객은 없었나요?

도요 / 일단 없었어요. 그런 의도인가 싶었던 관람객들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 바퀴 둘러서 보고 나가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웃고 그런 건 있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괜찮았어요.

비누 / 사실 되게 걱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시 포스터를 어디다 붙이느냐 마느냐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저는 회사를 다니니까 지킴이가 보통 혼자서 전시회를 지킬 텐데, 대처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질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대처할 일 없이 잘 끝나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어요.

도요 / 좋은 건 아니지만 전시 공간에서 자본이 주는 위압감이 있어서 함부로 어떻게 하기 힘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옆에서도 계속 다른 행사를 하던 중이었으니까 그 영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이었죠.

어푸 / 전체 기획 회의는 얼마 정도 했나요?

도요 / 딱 세 달 했어요. 한 학기 더 버텨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한 학기 내내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전시를 기획하면 뭐라도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죠.

비누 / 한 학기의 활동이 곧 전시 기획이었던 거죠.

유연 / 인터뷰 질문 짜면서 다른 편집위원이 구글 문서에 전시 제목에 들어가는 비행이라는 단어가 '날다'도 되고 '탈선'의 의미도 있어서 정말 좋다고 적어놨더라고요.

비누 / 아, 맞아요. 알아주셔서 감사하네요.

도요 / 〈비행일지〉 전시 제목 정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시 제목도 정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네요. 처음엔 '뜨다'를 가지고 제목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있는 '비행'을 넣고 싶다는 의견이 나와서. 〈비행일지〉로 가자.

비누 / 페스포트라는 동아리 이름과 연관을 지으면서 마무리되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활동 아카이브 전시회를 만들려 해서, 일지가 가장 그 느낌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았고. '뜨다'라는 키워드도 포기하기는 아까워서 부제로 각 시기의 소재목으로 활용했어요.

유연 / 세미나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중에서 전시회에 넣을 내용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을까요?

도요 / 일단 남아있는 자료가 전시하기에 적합해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메모처럼 간략하게만 남아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너무 실명을 거론하며 대화한 것도 있었고, 그 당시의 대화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전시를 해뒀을 때 혐오적이라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빼고, 기획할 때 재밌는 흐름이 나올 것을 막 의도하고 자료를 정한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그렇게 되기도 했어서 그게 좋았죠.

어푸 / 저는 참여형 전시 기획이 진짜 좋았어요. 전시회장 들고 다니니까 왼쪽 빨간 스티커들만 고갈되어 있고.

유연 / 맞아요. 스티커 붙이는 게 재미있었어요.

전시회에서 제공된 위치 스티커 판은 관람객을 페스포트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나온 기획이었다. '그곳에 어떤 내가 있었는지'

라는 글귀와 전시장 곳곳에 흔적을 표시해달라는 설명이 적힌 스티커 판은 전시를 찾아온 관람객을 위한 감정의 팔레트였다. 위치 스티커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부정에서 긍정에 가까워지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동적에서 정적에 가까워지는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부정적이며 동적인 좌상단의 지도 판은 붉은색 지도 판 옆에 ‘분노하는’이나 ‘화난’ 같은 말이, 긍정적이며 동적인 우상단에는 노란색 지도 판에 ‘행복한’과 ‘희망찬’이, 부정적이고 정적인 좌하단의 파란색 판 위에는 ‘슬픈’과 ‘속상한’이, 긍정적이고 정적인 우하단 녹색 판 위에는 ‘편안한’이나 ‘위로받은’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전시회장을 방문한 편집위원들도 각자가 전시물을 보고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스티커를 붙이며 전시를 천천히 살폈다. 전시의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붉은 계열의 스티커는 모두 사용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담은 푸른 계열의 스티커는 많이 남아 있는 것을 공유하며 묘한 공감대를 나누기도 했다. 이 시간은 편집위원들에게 과거를 떠올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페스포트가 걸어온 길을 그려보고 그 시간을 짐작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비행일지〉 전시 위치 스티커 템플릿과 전시 마지막 날 “페스포트, 자리를 뜨다” 색선에 위치 스티커가 잔뜩 붙은 모습. 페스포트 제공.

비누 / 다들 빨간 스티커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붉은 면을 넓히고 푸른 면을 좁힐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원래 계획대로 갔죠.

어푸 / 전시 막바지에 스티커가 제일 많이 붙었던 곳은 어디인가요?

비누 / 마지막 섹션인 ‘자리를 뜨다’. 오픈 세미나 중에서는 ‘총여학생회 백래시 페미니즘’에 꽤 많이 붙은 편이었어요.

어푸 / 위치 스티커를 붙이는 기획은 어쩌다가 하게 되었나요?

비누 / 일단 저희는 오신 분들이 이 전시를 훑 훑고 지나가는 건 원하지 않았고, 저희가 이만큼 많은 것들을 해왔어요, 라는 것들을 좀 더 잘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여형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도요 / ‘직접 만드는 비행일지’를 테마로 일지를 쓰는 것이나 뜨개질, 자수를 해 보자는 제안도 있었고, 구슬이나 인형 같은 것을 전시에 가지고 다니면서 놓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 보거나, 책갈피 같은 것을 뜯어서 모을 수 있게 하자는 논의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스티커를 붙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스티커를 붙이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색깔로 직관적으로 느낌이 나타나는 게 전시 구성에 좋을 것 같았고. 이 전시가 어쨌든 우리가 걸어온 길이니, 거기 위에 지도 판 모양으로 함께한다는 걸 표시할 수 있는 스티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스티커로 기분을 나타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스티커 기획을 정교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런 상징으로 압축시켰을 때 감정들이 좋다 싫다 정도로 납작해지는 것은 방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단순 스탬프 행사처럼 약간 재미없어 의무감에 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 전시가 관람객한테 단순하고 표면적인 경험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전시를 텍스트로 줄였을 때 너무 간단하게 요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논점들을 정리해서 관련 회의만 세 달 가까이 했어요.

비누 / 더 잘 하고 싶어서 오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다들 좋아해 주셔서 좋고.

어푸 / 덕분에 전시 내용을 길게 보게 되고 보는 내내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유연 / 스티커가 아까워서, ‘이거를 여기다 붙여도 되나? 이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데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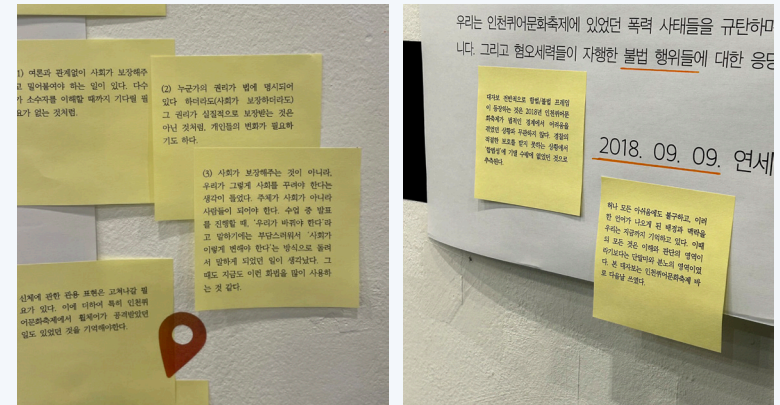
<비행일지>의 기획 중 대자보 옆에 붙은 포스트잇도 편집위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여러 사안을 마주하고 작성한 대자보를 전시하며, 페스포트는 그 옆에 전시점에서 살폈을 때 의미가 불명확한 것이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자체적인 피드백을 대자보 옆에 포스트잇으로 덧붙여 두었다. 많은 성찰과 다짐이 덧붙여 있었다. 다급한 상황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쉽게 발생하는 실수를 성찰할 뿐만 아니라, 페스포트가 활동을 지속해오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에서 나누는 고민 역시 깊어지고 넓어졌음을 볼 수 있는 기획이었다.

어푸 / 전시회를 보면서 2019년도 무렵에 대자보를 많이 쓴 게 보였거든요. 이 시기에 외부적으로 목소리를 많이 내려고 했던 동력의 한편에서는, 당장 어떻게든 행동해야 한다는 뜨거운 감정이 분명히 느껴지더라고요. 페스포트가 썼던 대자보를 돌아보면서 그런 감정들을 다시 마주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비누 / 저희끼리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자보를 쓰게 되면 당시 그 상황에 저희들의 감정이나 정리되지 않은 생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보에 일단 쏟아놓다 보니까 말이 좀 거칠어진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정리하느라 미처 고려하지 못한 다른 혐오적인 부분들이 지금 돌아보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피드백하듯이 전시를 해 보자는 의견도 나왔던 것 같아요.

도요 / 지금 그렇게 자보 쓰려면 못 쓰거든요.

비누 / 맞아요. 지금 못 써요.



페스포트에서 작성한 대자보에 덧붙인 포스트잇 피드백들, 문우편집위원회 촬영.

도요 / 뻑침과 분노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자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비누 / 뻑침과 분노와 기력, 그리고 사람!

어푸 / 전시를 보면서 이렇게 자보를 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감정과 기력과 응집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도요 / 자보를 완벽하게 쓰려고 하면 절대 못 내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당연히 아쉬움이 남을 글들인데, 그래야만 대자보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전시를 위해 예전 자보를 피드백, 침묵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피드백 다는 것 자체가 그때 나왔던 감정들도 지금 다시 느낄 수 있는 동시에 지금 다시 생각해낸 것들에 대해서도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이었어서.

어푸 / 만약에 단체가 계속됐으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게 혹시 더 있을까요?

도요 /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 그런데 사실, 전시를 위해 8년 치 회의록을 쪽 훑으면서 뭘 하고 싶었는지 정리를 한 다음에 실제로 했던 걸 지웠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뿌듯했어요.

비누 / 소소하게 뭔가 발제하고 싶다 이런 것도 회의록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1학년 때부터 여성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졸업 직전에 마침내 그 주제로 세미나를 했어요. 한 4년 동안 생각만 하다가 실현한 거죠.

도요 / 못해서 아쉬웠던 거는 박물관 견학 같이 가기 이런 거? 아예 안 간 건 아니었는데 같이 가보자 했던 것들 중에 그래도 못 갔던 데가 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쿼터 부스 참가. 이건 사실 쟁쟁한 대학 단체들이 많아서 하기 힘든 면이 있긴 했죠. 같이 농활 가자고 이야기해본 것도 좋았는데 못 가서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그건 농활 갈 수 있었던 시기에 딱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어푸 /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일을 꼽자면 무엇이였을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요 / 전 전시 기획한 게 너무 재밌었어요. 몇 년 치의 활동을 압축해서, 전시 회의를 매주 했는데 회의가 끝나면 저 혼자 한 시간 동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면서 이 때 이런 것도 했었지, 하는 감상에 젖고. 방 정리랑도 비슷한데 훨씬 재밌는. 그리고 옛날 회원들한테 연락하면서 그때 소회 좀 써줘 연락하고 그걸 받아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비누 / 저도 전시 준비한 게 임팩트가 제일 크고 규모도 큰 일이다 보니 제일 기억에 남고. 그거 말고 기억나는 일이라면... 18년도 끝나고 12월에 종강 파티 겸으로 그때 활동하던 친구들하고 마라탕이었나...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밥을 먹으면서 1년 동안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동아리에 들어오기로 한 게 너무 잘 된 일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벅찬 거예요. 대학에 들어와서 1년 동안 한 선택 중에 여기에 들어오기로 한 게 제일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니까 되게 벅차서 눈물이 났는데 옆에서 “너 울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울고 넘어가긴 했는데 그 기억이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어푸 / 두 분 다 동아리에 추억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서 듣는 것만으로도 좋네요. 혹시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요?

비누 / 일단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요 / 저희 방명록에 무서워서 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길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있었다는 건 무서워서 전시회에 못 온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좀 속상하죠. 그래서 더 감사해요. 이렇게 뭔가 남기고, 저희에게도 말하는 자리가 해소하는 기회가 되니까.

앞으로의 비행을 그리며

끝이 슬프지만은 않은 것은 하나의 끝이 수많은 시작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행일지〉 전시를 알리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페스포트는 이제 착륙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내려서도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지금껏 함께 만들어온 일지가 다음 누군가의 여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⁵⁾라고 관람객을 초대했다. 페스포트뿐만 아니라, 백래시와 같은 내외적 부침으로 문을 닫은 많은 페미니즘 공동체의 구성원들 역시 그런 길을 걸었고, 현재 페미니즘 공동체 또는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역시 다르고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음을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뒤늦게 깨달았다. 두 사람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오간 웃음과 농담들을 떠올려 본다. 학교에서의 삶에 있어 크나큰 일부였던 동아리를 접는 데에 많은 아쉬움과 슬픔을 간직하고 있으리라는 짐작과는 달리, 두 사람은 활동에 마침표를 찍기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모순적이게도 페스포트가 구성원들의 삶에 다양한 모든 방식으로 크나큰 일부였기 때문에, 페스포트를 통해 “해방의 언어”를 얻기도 하고 새로운 관심사를 넓혀나가며 삶의 지향을 다

5) 페스포트 인스타그램, “연세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페스포트의 닫는 전시 〈비행일지〉,” 2023.11.07., <https://www.instagram.com/p/C2VtseownY>.

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전사회에서 페스포트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듣는 동안, 페스포트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연결을 중요시하는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구성원들이 즐거운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공동체라는 목표를 꾸준히 좇았기에 “함께 있어서 좋은 공동체였다”라는 감상과 함께 동아리의 끝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들에게 페스포트는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동아리인 동시에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장소, 선뜻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불안한 학교에서 “여기서만큼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연결에는, 믿음과 친밀함과 안정감에는 힘이 있다. 학내에서 페미니즘 동아리로 활동하는 것의 어려움을 버텨내기 위해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를 돌본 시간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다시 무언가를 시도하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었다. 백래시가 계속되고 불안정함을 감각하게 되는 요소가 매일같이 늘어나는 오늘날, 주변과 적극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현재의 불안정함 위에 토대를 빚고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더욱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들이 버텨온 시간이 페미니즘 공동체를 지향하고 꾸려나가고 있는 단체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란다. 최선을 다한 기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비행, 혹은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응원하고 싶다.



편집위원 데어

쓰레기름 찾습니다

연세대 쓰레기 탐험대, 첫 번째



2월 13일 늦은 저녁, 네 명의 대원이 분홍색 고무장갑을 들고 연희관의 지하 출입구로 들어선다. 수업이 일찍 끝나는 기말고사 기간의 연희관은 무척 조용하다. 네 사람은 인적 없이 전등 불만 켜진 지하 로비와 강의실을 지나 사회과학대학 자치도서관 앞의 쓰레기통 앞에 선다. 왼쪽에는 종이, 가운데에는 일반 쓰레기, 오른쪽에는 재활용. 커다란 쓰레기통은 은빛으로 빛나는 상자처럼 보인다. 오늘은 이 보물 상자를 열어보기로 한다.

보물 상자를 여는 데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다. 어떻게 열어요? 여길 눌러야 돼요. 그러면 손잡이가 튀어나와요. 이전에 만나서 먼저 탐험을 진행한 사람이 시범을 보인다. 세 개를 모두 열고, 두 명이 고무장갑을 낀다. 남은 두 명은 스마트폰을 들고 기다린다. 먼저 상자 속 쓰레기통을 끄집어내고 사진을 찍는다. 그런데 이거 나중에 볼 때 어디에 있는 무슨 쓰레기통인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영상도 남겨야 돼요. 사진을 찍은 사람이 동영상을 켜고 말한다. 연희관 지하 1층 왼쪽 자도 앞, 재활용 쓰레기통. 그제야 고무장갑을 낀 사람들이 쓰레기를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한다.

근처 강의실에서 행사를 진행했는지, 종이 칸에 읽기 자료와 이름표가 들어있다. 일반 쓰레기에는 현수막도 있다. 옆의 플라스틱 칸에는 페트병과 테이크아웃 잔, 일회용 용기가 들어있다. 언뜻 보기에는 분리수거가 잘 된 것 같다. 하지만 쓰레기를 하나하나 꺼내자 그렇지 않은 않다. 페트병과 테이크아웃 잔에 음료가 남아있다. 페트병에는 라벨지가, 테이크아웃 잔에는 컵 홀더가 끼워져 있다. 샌드위치가 들어있었던 것 같은 다회용 용기에는 소스가 묻어있는 채이다. 카메라를 켜 사람이 각 칸에서 나온 '잘못된' 쓰레기의 사진을 찍는 동안, 다른 사람은 스마트폰 메모장에 어떤 종류의 '잘못됨'인지 기록한다. 잘못된 칸에 들어간 것인지, 잘못된 방법으로 버려진 것인지 기록하고 나면 그다음은 그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차례이다. 라벨지는 떼서 일반 쓰레기통에 버린다. 컵홀더는 종이 칸에 들어가야 한다. 남은 음료는 당연하지만 비워줘야 하고, 일회용 용기의 소스도 씻어내야 한다. 쓰레기가 모두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면 쓰레기통을 집어넣고 상자를 닫는다. 이제 다음 보물 상자를 찾을 때다.

네 사람은 연희관 지하부터 4층을 돌아다니며 모든 쓰레기통과 재활용함을 뒤지고 기록하

고 분리수거를 했다. 재활용 칸의 페트병이나 테이크아웃 잔에서 음료가 제대로 버려지지 않은 경우가 가장 흔했지만, 재활용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 칸에 버려져 있거나, 음식물 쓰레기가 비닐에 싸여 버려져 있는 일도 있었다. 다음 날과 그 다음날에는 학생회관에서 똑같은 조사를 했다. 쓰레기를 꺼내 제대로 버려지지 않은 쓰레기를 기록하고 자료를 모았다. 이들은 '연세대 쓰레기 탐험대', 학교에서 쓰레기로 발생하는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 위해 모였다.



학교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학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쓰레기 탐험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연세대 쓰레기 탐험대(이하 쓰레기 탐험대)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이하 연세대 분회), 문과대학 자치연론 문우(이하 문우), 연희관 015B(이하 공일오비),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중앙교지 연세편집위원회(이하 연세지)의 다섯 개 단체로 구성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연세대학교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청소노동자 관련 문제, 특히 2022년의 청소노동자 쟁의에 쓰레기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청소노동자들은 꾸준히 노동 인원에 비해 업무가 과중함을 지적해 왔다. 그 원인으로는 정년퇴직 인원이 충원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늘어나며 쓰레기양이 증가하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

쓰레기 탐험대가 만들어진 것은 2023년 9월 3일이지만, 쓰레기 문제에 대해 학내 구성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 '23년 6월, 연세대 분회에서 공대위에게 쓰레기 문제를 같이 다루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건넸다. 당시 공대위는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역시 명확하지 못했다. 또한 문제의식이 연세대 분회와 공대위 내부에서만 공유되어,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했다.

따라서 공대위는 첫 번째로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두 번째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수립하고, 세 번째로 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이는 '연세대 쓰레기 배출 및 수거 문제 해결을 위한 교내 소통 간담회'로 구체화되었다. 공대위는 공일오비, 문우, 연세지 등 자치언론과, 환경 관련 동아리, 워크스테이션 등 여러 학내외 단체들에 간담회 공동주최를 제안했다. 이에 응한 단체들이 모여 8월 4일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간담회 1부는 이류한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님의 발제로, 2부는 실제 학교에서 노동을 담당하고 계시는 청소노동자의 현장 발언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 오간 내용을 요약하면,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강의 및 연구시설, 행정시설, 교내에 입점한 식당과 매장, 주거시설 등이 자리 잡은 복합시설이며, 수만 명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특히나 연세대는 국내 대학교 중 두 번째로 큰 면적과 교직원과 간접고용 노동자를 제하고도 재학생만 3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자랑하기 때문에, 교내의 쓰레기 문제가 주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를 거치며 배달 음식이 보편화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일회용품, 포장용 플라스틱과 비닐 폐기물 배출량이 크게 늘었으며, 코로나19로 정착된 배달 음식 문화가 대학학기에도 그대로 이어져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쓰레기의 절대적인 양이 늘어난 것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의 양도 늘었으며, 각종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혼입되는 경우도 늘었다. 이 경우 이를 정리하는 것이 청소노동자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은 기존보다 업무의 강도가 세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취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우며, 쓰레기통을 설치할 경우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일부 건물이 암묵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있지만, 건물 외부의 구석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 찾기가 어려우며, 이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일반 쓰레기 칸에 버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생과 노동자는 배달 음식에 대한 규제 혹은 학교 차원의 대응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학생과 노동자가 쓰레기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주체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를 통해 청소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이후 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동월 18일, 공대위는 송도 국제캠퍼스의 청소노동자와 만나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촌과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점, 학생들이 쓰레기 문제를 모르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목되었다. 학생들이 해당 문제에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며,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대위는 두 차례의 간담회에서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9월 3일 간담회 공동주최 단위들과 회의를 진행했고, 9월 9일 연세대 쓰레기 탐험대를 구성했다.



탐험대가 구성된 후 가장 처음으로 진행된 활동은 간담회였다. 지난 간담회가 쓰레기 문제에 관한 문제의식을 이미 공유하고 있는 단체와 진행한 것이었다면, 이번 간담회는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했다. '연세대 쓰레기(에 관심 있는 자) 모두모두 모여라 간담회'에서는 8월 4일 진행된 간담회의 발제를 정리하고 보강하여 다시 한번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쓰레기 탐험대를 소개하고 활동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쓰레기 지도와 르포 작성, 학내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쓰레기 이동 경로 추적 등 활동 방향을 설정했다.



지난 연말, 쓰레기 탐험대는 학교의 쓰레기 발생 현황에 대해 더 직접적인 데이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여러 논문과 보고서에서 대학교의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지만, 그러한 데이터가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 데이터는 공허할 뿐이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는 대체로 한 개의 단과대학이 한 개의 건물을 중점적으로 사용

하며, 단과대학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의 종류와 양이 다르다. 각종 실험이 진행되는 공과대학에서는 실험 관련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식이다. 또한 시간대에 따라 쓰레기가 발생하는 양이 다르므로, 청소의 강도 역시 다르다. 예를 들어 화장실은 빨리 더러워지므로 오후에 다시 청소가 필요하다. 새벽 시간에는 교직원과 학생이 학교에 도착하기 전 청소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짧고, 따라서 가장 노동강도가 높다고 한다. 또한 절대적인 쓰레기 배출량과 더불어 재활용 혼입률, 음식물 쓰레기 혼입률이 노동 강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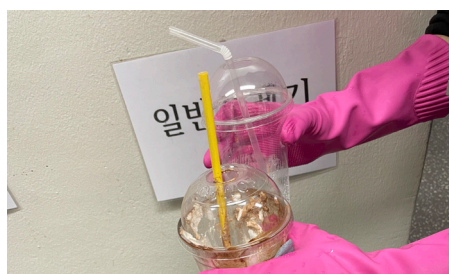
이와 같이 현장에서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청소노동자께 양해를 구해, '23년 9, 12, 13, 14일 청소를 진행하지 않는 시간에 연희관과 학생회관의 쓰레기통을 열어 안의 쓰레기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또한 조사를 진행하며 쓰레기의 양을 파악하는 동시에 해당 자료를 어떻게 수치화할 것인지—예컨대 쓰레기를 개수로 센다면 무엇을 쓰레기 '1개'라고 할 수 있는지, 개수를 세지 않는다면 무엇을 세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잘못된 쓰레기가 버려진 '횡수'를 세고 기록하며, 이러한 쓰레기를 '밀봉된 음료', '밀봉되지 않은 음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혼입', '일반 쓰레기 혼입', '종이 혼입'의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통계를 내고 지도로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를 진행하며 본 쓰레기통의 사진



조사 중 발견한 혼용 쓰레기의 사진



조사 결과, 특정 단과대생이 주로 이용하는 연희관보다는 모든 학생이 폭넓게 이용하는 학생회관의 쓰레기 배출량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건물의 거의 모든 쓰레기통에서 음식물과 음료, 혼입된 쓰레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거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 가지 문제 중 최소한 하나는 꼭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음식물과 음료의 경우 혼입된 쓰레기의 개수보다는 혼입된 쓰레기 존재하느냐의 문제가 좀 더 중요했다. 분리배출을 노동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테이크아웃 잔과 같이 밀봉되지 않은 쓰레기는 쓰레기통을 비우는 과정에서 엷어지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통 안의 쓰레기 전체가 오염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바닥에 쏟을 경우 이를 청소하기 위한 노동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학생이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더라도, 밀봉되지 않은 음료 하나가 통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혼입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반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많은 쓰레기통이 쓰레기통의 절반 혹은 절반 이하가 차 있었다. 평소 학기 중의 쓰레기통 상태를 고려해 보았을 때 조사 기간이 기말고사 기간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한다. 시험은 보통의 수업보다 일찍 끝나며, 이후 많은 학생들이 집에 가거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므로 각 건물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당 조사가 쓰레기의 양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본이었던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또한 방학이 시작된 이후로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어 조사가 진행된 건물이 두 곳이라는 아쉬움이 있으며, 조사 초반 쓰레기 분류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조사가 엄밀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4학년도 1학기에는 좀 더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쓰레기 지도 사진





이 문제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 없으며, 끝나서도 안 된다. 쓰레기 문제 자체가 일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한 쓰레기는 끝없이 생산될 것이다. 따라서 쓰레기 탐험대는 단순히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 고취 같은 단기적 해결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또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기적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연세대학교 고등교육 혁신원의 워크스테이션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학내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법은 쓰레기를 생산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의식 제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학내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재활용 쓰레기를 재활용 칸에 넣는 것만으로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쓰레기는 올바른 위치에, 올바른 상태로 버려져야 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버린 쓰레기가 매일 새벽 트럭에 실려 학교를 떠나면, 그 쓰레기는 재활용을 위해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 그린피스의 2021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25%를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¹⁾ 때문에 쓰레기 탐험대는 학교 밖으로 나간 쓰레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재활용되는지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지, 그곳에서 무엇이 되는지, 우리는 왜 이 과정에 대해 하나도 알지 못하는지. 쓰레기 탐험대는 새로운 질문을 갖고 다시 한번 출발한다.

참고문헌

김나라, 최혜원, 장용철, 권영선, 송하균, 김병환, 정지현,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코로나19 시대, 플라스틱 소비의 늪에 빠지다 (서울: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2023)

사진 출처

연세대 쓰레기 탐험대

1) 김나라, 최혜원, 장용철, 권영선, 송하균, 김병환, 정지현,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코로나19 시대, 플라스틱 소비의 늪에 빠지다 (서울: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2023)

문우 68호 독자모임

정리정돈 비상, 튜브, 아자

연세편집위원회, 연희관 015B, 문우편집위원회의 사람들이 015B의 보금자리인 연희관 자치도서관에 모였다. 세 단체의 합동 독자모임이 성사된 이 자리에서는 모두가 비슷한 감수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편안한 분위기와 함께, 평소라면 쉽게 꺼내지 못했을 법한 주제가 오갔다. 이번 독자모임은 『연희관 015B』의 19호와 『문우』의 68호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아래는 『문우』 68호의 독자모임 내용이다. 『연희관 015B』 19호의 독자모임 내용은 후에 발간될 『연희관 015B』의 다음 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자기소개

- 비상** 안녕하세요. 저는 문우 소속이고요. 2023년 편집장입니다. 필명은 비상입니다.
- 오월** 저는 015B 편집장 오월입니다.
- 영원** 저는 015B의 부원이고 제 필명은 영원이예요.
- 핑동** 저는 핑동이고요. 015B 편집장을 오월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예인** 저는 연세편집위원회에서 편집장 6개월째 하고 있는 예인입니다. 반갑습니다.
- 시후** 저는 연세편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시후입니다.
- 데어** 저는 문우편집위원회 편집위원이고, 필명은 데어를 쓰고 있습니다.

1. [권두시] 유령(들) / 유연

- 예인** 저는 권두시를 넣을 생각도 못했었는데. 옛날 『연세』나 다른 교지에는 권두시가 꼬박꼬박 실리더라고요. 이 권두시를 읽으니 책에 접속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몰입도 되고요. 그래서 권두시가 정말 매력적이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 핑동** 내용도 인상 깊지만 사실 내 시를 어딘가에 싣는다는 게, 큰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인상 깊었어요. 저도 비슷하게 권두시가 이 책의 분위기를 딱 환기해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배경에 있는 디자인도 좋고.
- 영일** 시를 잘 독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권두시가 되게 단단한 목소리로 쓰여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겠다는 다짐, 선언이라고 읽혀졌어요. 저도 권두시가 이 책에 접속하는 느낌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2. 편집장 서문 / 나비



오월 다루는 소재도 좋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도 사회의 구석구석을 찌르는 비명을 연습해 보자, 그리고 함께 절규하자, 라고 얘기를 해 주신 그 마지막 문단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사회의 구석구석을 찌르는 비명을 단순히 글로만 연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연결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했다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마음에 들었어요. 단순히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문우라는 공동체로서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게 잘 드러나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예인 저는 이 말이 인상 깊었는데요. ‘이야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현실적인 한계로 더욱 풍부한 문우지를 내지 못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진심이 느껴졌달까요? 좀 감동했어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느껴지고.

오월 예인의 말에 공감합니다.

예인 그런 한계를 반성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문을 쓸 때, 기본적으로 책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독립적인 글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글에서는 문우에서 한 학기에 한 활동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글의 소재나 목차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저는 제목 정도 언급하거든요. 근데 (한 학기의 활동) 전체를 다 다루는 것이, 뭐랄까, 좀 더 편집장 같다. (웃음) 전체적인 동아리 활동과 책을 신경 쓰는 마음이 좀 더 느껴진달까요?

3. [메인기획 1: 동물권/비거니즘] 문우 비거니즘 집담회 / 아자



오월 저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좋았지만, “고기를 먹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로 꺼려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각자 경험을 얘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흥미

로웠어요. 또 비건을 하는 것과 계급의 연관성, 비건 실천에서의 계급성도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대한 많은 것을 고려하고자 하는 문우의 사려 깊음이 잘 드러났던 부분 같아요.

시후 일반적으로 스님이 고기를 먹지 않는 건 뭐라 하지 않는데, 일반인이 고기 안 먹는 건 뭐라 한다, 그런 내용이 뇌리에 스쳤어요.

비상 종교적인 이유라거나 건강 이유라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납득하는데 개인의 신념이나 정치적 이유라고 하면 의문을 표하는 것 같아요.

오월 여기서 비건의 유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저는 재밌었어요. 채식주의자들이 모여서 하는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13년 차 비건인 분이 말씀하시길 비건에 대한 시선이 많이 좋아진 것이 이효리가 비건 시작하고 나서라고 하셨거든요. 확실히 ‘힙스터 같은’ 느낌의 아이콘이 비건을 하면 그것도 ‘힙함’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정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일단 사람들이 시도해보게 하기에는 그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대중적인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진정성에 대한 지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짚어주는 게 좋았습니다.

예인 저는 소위 “식당에서 갱판 치는” 단체에서 한 반년 정도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동물권, 비건을 주제로 대화를 했을 때 생기는 긴장과 다이내믹을 너무 많이 경험해봤어요. 연세편집위원회에서 비슷한 활동을 했을 때도 긴장감(이 있었어요). 물론 활발한 토론을 하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여기는 긴장감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다들 어떻게 이렇게 ‘한패’지? 물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겠지만, 혹시 누군가는 참고 있지 않나?

비상 제가 기억하기로 이 당시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서로의 성향 파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비거니즘을 어느 정도 실천을 하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비거니즘에 관해 말을 할 때, 적대시하거나 꺼려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공

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좌담회가 진행됐어요.

데어 한 학기 동안 동물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한 상태였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끼, (세미나 때마다) 우리가 다 같이 먹는 이 식사는 비건으로 해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여기에 페스코 당사자분도 있었고. 다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건 지향 정도는 된다는 사실도 한몫하지 않았나.

4. [메인기획 1: 동물권/비거니즘] 대학 비건 주절주절 / 나비



오월 연세대는 언더우드 학부가 있고 외국인 학생들을 받는 걸 정말 사랑하는 학교인데, 다양한 식생활에 대해서 보장해 주지 않는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연대생들이 학교 안에서 음식으로 갖게 되는 불만 같은 것들이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티가 덜 나는 거지,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연스럽게 육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음식에 육수가 나오고 김치는 젓갈로 담그는, 이런 곳에서는 확실히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상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교에는 외국인 학생이 많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목상으로도 채식 학식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예인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비거니즘은 완전한 타자가 겪는, 자신은 평생 겪을 일이 없는 고통에 대해서 연대하고 생각하게 하는 사상이야, 그래서 이런 사상이 보편화되면 인간도 타자와 연대가 쉬워지고 훨씬 살만해질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건식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비건식이 보편화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인간만 잘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만을 위한 비건식이 보편화되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비건식이) 곧 보편화될 거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살고 싶

으면 뭐라도 하겠죠 사람들이. 유럽의 어떤 도시에는 아예 상업적인 육류 광고를 금지했는데, 엄청 급진적인 제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비건식이) 금방 보편화는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식단뿐 아니라 사상이 보편화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5. [메인기획 2: 노동] 지옥으로의 배달 / 튜브



오월 배달이 단순히 배달인 게 아니고 플랫폼 노동이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자신의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컸는데, 그래서 이 글에 ‘임금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부분이 공감 많이 됐었어요.

배달하는 사람들을 배달 ‘노동자’라고 명명하고, 시혜보다도 노동권의 측면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짚어주는 글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문우 이번호 노동 파트의 처음이 “지옥으로의 배달”이라는 제목이라서 참 좋았습니다.

땡땡 CJ 대한통운이 노조와 교섭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오늘 봤던 것 같은데, 그 기사가 생각이 났고요. 가까운 가족 중에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더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특히 이런 직종이면 아예 거의 취급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비상 ‘덜컹한 일’을 따로 만들어 놓고, ‘번듯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데어 이 글에서는 택배 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게 그 사람들이 플랫폼 노동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짚잖아요. 플랫폼 노동이 비교적 최근에 생겼다는 걸 생각하면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법이 못 따라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고 그 부분을 글에서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에인 저는 이 글이 상냥하게 설명도 잘해주고, 법이 개정되었지만 어떤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주제에 관련된 사건들의) 흐름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쿠팡에서 일을 한 번 해 봤거든요. 딱 하루. 그날 제가 진짜 말 그대로 죽을 뻔 해서, 그래서 도저히 못 하겠어서 중간에 뛰쳐나갔단 말이죠. 그 일이 말하자면 글에 나와 있는, 택배 기사님들한테 넘기지 말라고 하는 그 분류 작업일 거 아니에요. 쿠팡 같은 회사가 따로 사람을 뽑기 전에는 택배 기사님들이 그런 작업도 하셨을 텐데. 미디어에 나오는 것만으로 표현되지 않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를 딱 하루만 가 봐도 알겠어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쿠팡을 며칠 동안 접속 안 하고 쿠팡은 진짜 망해야 된다, 반드시 망해야 된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노동자를 굴리는 데는 무조건 망해야 한다. 하루 갔는데도 쿠팡 물류 창고에서 사람이 왜 죽었는지 너무 잘 알겠고.

거기서 분류 노동하는 사람은 거기 거의 취직을 한 일용직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전원 일용직 노동자인데 그냥 매일 가는 일용직 노동자가 있어요. 이게 개인 사업자라는 게 너무 말도 안 돼요. (회사에) 완벽하게 귀속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개인 사업자인지? 택배 기사는 회사를 상대하는 사람인 거니까, 자유로운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더 큰 사업자에게 귀속받을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진작에 노동자의 위치를 보장받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6. [메인기획 2: 노동] 그늘에서 외치는 목소리 / 토리



영원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본인 개인이 경험하신 바에서 이야기가 출발하는 것도 좋았고, 특히나 장애인의 노동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따라가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호에 실린 글들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글에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식의 결론들이 뻗어지고 있다고 느꼈는데 이토록 우리가 제도 혹은 법에 기대는 이유가 뭘지가

궁금했어요. 저도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생각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제도 혹은 법의 언어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나 하는 의문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제도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나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나 법의 개선을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다고는 생각해요. 저도 그 밖의 다른 해결책 혹은 다른 방법, 다른 미래를 상상하기 어렵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제도나 법 밖에 있어도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항상 들기도 했어요. 행정의 언어 안으로 어떻게든 편입하려고 시도하는 것만이 운동의 결말이어야 할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어요.

비상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이 글도 그렇고 아까 “지옥으로의 배달”도 그렇고 항상 글을 마무리 지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적기 위해 다 같이 고민해보면 막막한 거예요.

제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법으로 구속되는 것들이 많고, 법이 보장해 주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에 우리 모두 동의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글로 써져요. 근데 그렇다고 어떻게 제도를 바꾸면 될까? 라는 질문도 다들 같이 고민하고 적기 힘들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 외에 공동체적 차원이라든지 개인적 차원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원론적인 대답들밖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인식을 바꿔야 돼, 이 정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게 되게 좋아요.

오월 제도가 먼저 생기면 사람들이 기득권 말은 잘 듣기 때문에, 그대로 인식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땡땡 저는 이 글이 당장 다음 달에 졸업하고 나면 저의 미래가 될 내용이라서 되게 착잡했고요. 사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이것도 최근에 축소됐다고 들었거든요. 그

리고 그 카테고리” 안에 권리 개선이 있었는데, 그것도 빠져서 항의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하여튼 점점 그나마 있던 제도도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깐.

그런데 사실 저도 장애 관련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매번 고민이 되는 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부분이에요. 촉구를 해야 되는데, 결국엔 난 무엇을 촉구해야 되지?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법이나 혹은 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결국엔 그게 제일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거든요. 왜냐하면 법은 강제력도 있고, (제도가 없을 때의)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깐. 그래서 그게 저는 슬프고, 그 와중에 있던 제도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깐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비상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닌 것이잖아요. 우리의 합의나 사회적 분위기가 법과 제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 훨씬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지금이 이렇게 무력하지만 그래도 지금이야말로 더 많이 모이고 이야기하고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후 글에 장애인을 고용하면 최저임금보다 덜 줘도 된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화났어요. 장애인도 사람인데 왜 덜 줘도 되지? 덜 먹는 것도 아니고 덜 쓰는 것도 아닐 텐데, 오히려 더 필요하면 더 필요했지. 이것도 고용의 형태인데 이게 맞나 싶어요.

1)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즉 흔히들 줄여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고 부르는 일자리에는 ‘장애인 권익 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의 총 세 카테고리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이를 전면 폐지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러한 서울시의 행태를 지칭하여 ‘권익옹호’ 카테고리가 삭제되었다고 부른다. 본문의 해당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밝혀되었다.
 조상지, “정부가 하지 않은 일, 중증장애인이 해왔다 / 조상지,” 비마이너, 2023.11.29.,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99>
 고병찬, “장애인끼리 ‘일자리 경쟁’ 붙이나 … ‘중증장애인 해고 밀어낸 서울시,’” 한겨레, 2023.12.2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2020.html

7. [문우의 눈] 인류의 외연을 확장하더라도 남겨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 야부



오월 트랜스 휴머니즘이나 인간의 사이보그화 같은 주제, 문자 통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문제의 핵심은 장애를 ‘이겨내야 될 역경’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몸이 아닌 몸들은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문제고요. 이 글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반가웠어요.

영일 공일오비가 이번 세미나 때 도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문”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도 “차라리 사이보그가 되겠다”라는 선언이 몸의 외연을 확장해서 기술이나 어떤 기계와의 결합을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엄청 강렬하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계와 내가 같이 살아가는 일이 동시에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아서 그 선언이 누락하고 있는 지점들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 실제로 우리가 기술을 사용해서 살아갈 때의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이렇게나 많다, 라는 지점들을 상세하게 짚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필요한데 그게 어떤 점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지점들을 상세하게 잘 짚어주셔서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똥동 저는 이 글이 이번 호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호가 전체적으로 정상성에 관련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정상성 밖에 있는 식사 혹은 정상성 밖에 있는 사람, 정상성 밖에 있는 노동 이런 식으로 그 밖에 있는 것들을 보는 느낌이에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보그 장애인이 전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될 수가 없어요. 상상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저는 로봇슈트를 입었다간 팔이 부러질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년 과학기술의 혜택도 못 보고 정말 안타깝구나.’ 이렇게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저는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요. 꿈을 꿀 때도 딱히 내가 침대에서 벗

어난 적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은 장애라는 속성을 되게 탈피하고 싶은 것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장애가 없는 제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게 돼버려서.

그런 바닥에 가까운 시선들이 너무 역력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장애는 결국에는 안 좋은 거니까.’ 그러면서. 저는 스티븐 호킹처럼 머리에 칩 넣고 이런 것도 너무 싫었거든요. 이 사람이 대단하지만 한편으로 ‘난 절대 저런 거 못 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진짜 멋지다 이게 바로 과학기술과 현대의 어떤 융합!’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깐 되게 웃겨요.



8. [문우의 눈] 내년 오월에도 광주에 간다면 / 어푸

영원 이 글은 성전화되어 있는 오월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히 의문을 제기해보는 글이라는 점에서 아주 큰 용기가 필요했던 글이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태일 열사의 죽음으로부터 촉발된 노동운동에서 여성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가 가려져 있었다는 김원 연구자의 연구를 좀 떠올리기도 했었는데 어떤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역사에 기록할 때에는 단일화된 서사로 기록을 하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 단일함을 대상으로, 다른 목소리가 있지 않았나 질문해 보는 글이었어요. 5.18을 경험해본 바 없는 우리가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앞으로를 나아가고 미래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오월 정신이라는 것 자체에 질문을 던져보는 어푸님의 물음이 유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만 어푸님이 말하고 싶은 오월 정신에 대해서는 본인도 어떤 말로 감히 정리하기를 어려워했던 게 느껴진 것 같아요.

비상 이 글은 정형화, 고착화, 신성시되어서 정치적인 수사로만 동원되는 5.18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 의문을 제기한 방식 자체가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글이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게 아니어도 상당히 좋고, (개념을 제시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5.18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어푸님

도 의도한 바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땡땡 저는 사실 이 글을 읽기 전에는 오월, 특히 광주의 오월에 대해서 되게 납작하게 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글을 보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렇게만 읽어낼 수는 없는 이야기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상상해봤어요. 정말 ‘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고 있었을 거고. 하여튼 정말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데어 저는 이 광주기행을 같이 갔다 왔었는데 기념관의 어떤 기록화 밑에 ‘광주와 대동사회’ 이런 설명이 적혀 있는 거예요. 당시에 아주머니들이 주먹밥을 나눠주고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하는 그 과정이 유교의 대동사회 같았다는 설명과 함께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 설명이 너무 썰매러웠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서울로 왔는데 어푸가 그 썰매러움에 대해 설명을 해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9. [문우의 눈] 해체될 가족 / 데어

땡땡 예전에 가족생활과법이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혼인에 관해 배우면서 “혼인은 국가에서 인정받은 강력하게 형성되는 관계다.”, 형언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은 했는데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딱히 결혼 생각도 안 하고 딱히 정상적인 어떤 핵가족의 형태를 꿈꾸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여러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제도권 안으로 밀어 넣는 시도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글에서 말씀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후에) 생활동반자가 있을지도 모르죠. 저도 모르는 가족의 형태를, 어떤 형태의 가족을 가지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데어 혼인관계가 새삼 강력하다는 생각이 든 건, 저와 부모님은 1촌이고 제 동생이랑

은 2촌인데 제가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이랑은 0촌이에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시후 얼마 전에 교황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나와서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걸 허락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이게 기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솔직히 큰 기대를 하고 있던 않은데 뭔가 바뀌어 가고는 있다, 우리도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어요.

데이 최근에 생활동반자법의 방향성이 동거하는 비혼 이성 커플 쪽으로 틀어지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이성 간 결합이 얼마나 강력한 인정을 받는 것인가 싶어요.

영원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저를 좀 가로막는 것 같으면서도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복잡한 양가적인 감정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가족의 해체 혹은 가족이라는 제도의 폐지를 이야기할 때 그를 대신할 새로운 돌봄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내가 가족이란 울타리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족이 어느 정도 공고할 수 있다는 제도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고민이다 보니까, 돌봄 공동체에서 어떤 형태의 돌봄이 정말로 가능할 수 있을지, 그 돌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상 이 글의 마지막이 좋아요. “지금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드는 바로 그 관계가 가족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렇게 독자들에게 말을 다정하게 건네는 방식이 저는 이 글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서 올해에는 연세에서도 밖에서의 활동을 더 준비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비상 이런 문화제에 와본 적이 없으신 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어요. 저는 이전에 이런 곳에 간 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대강 아는데 처음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하는 걱정도 있었고 경찰의 태도에 대한 걱정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문화제 행진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외국인 보호소 주변을 한 바퀴 돌았거든요. 외국인 보호소 안에 계시다가 나온 당사자분이 발언하러 오시기도 했는데, 외국인 보호소를 보면서 다 같이 욱도 했어요. 그런 현장을 다 같이 가보는 게 생각보다도 훨씬 좋았어요. 이렇게 함께 현장에 참여하는 게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문우에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인 IW31에서 진행하는 후원의 밤에 가본 적이 있는데, 되게 좋았어요. 다 같이 모여서 한 해 수고했다는 분위기? 근데 집회는 보호라는 명목으로 감금을 하고 그 안에서 가혹행위를 한, 비극적이고 무거운 문제에 관한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곳에 가면 항상 감동적이었다고요. 소재와 상관없이.

데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같은 결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그래도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예인 맞아요.

10. [정리정돈] 실천활동 - '버스타고 찾아가는 외국인 보호소 폐지 문화제' / 아자, 키마



예인 문우가 다 같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여요. 이 글을 읽기 전에 (문우) 인스타그램에 스토리 등이 올라오고 할 때부터 너무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유연 읽으셨던 제 글들은 일본 여행 중에 마무리 지은 것이랍니다. 짧게 주어진 겨울호의 집필 기간에 새로운 기획을 할 시간이 없어 지난여름 못다 쓴 글을 들고 왔는데, 덕분에 아주 물어버리려던 글을 내보일 수 있었어요. 문우에 글을 실을 때마다 아무도 쉽게 이해하지 못해서 비판을 덜 들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번엔 용기 내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권두시를 통해 어떤 마음을 실현시키고 말았네요.

이번 해와 이번 글을 함께해준 문우의 사랑스러운 편집위원들께 감사합니다. 69호에서 특별히 더 감사한 분들을 꼽자면 하나는 저와 함께 다녀온 페스포트 인터뷰를 멋진 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준 어푸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적인 격려와 수고로 이번 호가 나올 수 있게 해준 23년의 편집장 비상입니다. 내년에도 문우에서 서로를 마주할 편집위원들과 문우 사람들에게 반짝이는 시간을 남기고 떠나갈 편집위원들 모두에게 정말 좋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지난한 밤과 나지 않는 새벽을 살아나가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국 썼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류브 시간이 촉박해서인지 다들 힘들게 집필한 69호에 제가 너무 편하게 손가락만 얹고 이름을 올리는 것 같아 괜히 부끄럽네요... ㅎㅎ 그렇지만 지난 호에 이어 매년 다른 주제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문우의 새로운 호에 작더라도 계속해서 이름을 올릴 수 있어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이해 한 학기 동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답론을 주고받을 만한 여러 주제에 대해 다른 분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내 주신 피드백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갖고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감사드립니다!

어푸 마감을 훌쩍 넘기고 원고를 넘기는 날 새벽... 아니지 아침에 마침내 마감을 했습니다. 잠만보는 언제나 그렇듯 네 시가 되기 전에 미리 재워뒀고요. 배가 고파 종이이라도 뜯어 먹고 싶은 마음이에요. 샤워도 못 했는데 과연 이것을 쓰고 샤워를 하게 될지 드러눕게 될지. 인터뷰에 응해주신 페스포트의 도움과 비누님께 감사의 말을, 속기를 풀고 내용을 숙야내고 말을 다듬는 과정에 함께해준 유연과 비상과 포슬에게 덕분에 조금이라도 덜 절망하며 글을 쓸 수 있었다는 말을 남깁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뜨개질만 하렵니다.

데어 겨울 마감이 여름 마감보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을 미리 깨달았더라면 무언가 달랐을까요... 예상하지 못한 일정들과 각종 마감들 사이에서 문우 마감을 우선순위에 두려고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그럼에도 일단은 글을 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 없는 장르의 글인데, 어떻게 읽힐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글을 읽고 검토해주신 스레기 탐험대와 문우의 편집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정말로요. 문우에서 글을 쓰고 공부를 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힘들고 무거울지라도, 돌아보았을 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기를 바랍니다. 그 때에 우리가 서로에게 건넨 다독임이 정말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자 마감일이 일러 촉박해진 일정에도 다들 집필/편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글을 쓰는 게 무서워서 자꾸만 피하게 되네요. 다음 호에는 저도 글을 실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겠습니다.

비상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날은 춥고 나는 아프고 일은 바쁘고 글은 많고... 겨울 마감은 언제나 정말 촉박하고 힘듭니다. 편집장 서문도, 제 글도, 독자모임 정리도 어느 것 하나 쉽게 느껴지는 게 없었습니다. (쉬우면 안 되는 거겠지...) 그래도 이번 호에 실리게 된 제 글이 나름 마음에 들었고, 제가 열심히 피드백을 했던 걸 떠나 정말 좋아하는 기획들이 있어서 이번 호가 마음에 듭니다. 이번 제 글이 너무 저의 묘사이면서도 또 전혀 제가 담기지 않아서 볼수록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한데, 그래도 긍정적인 감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감상도.

아무튼, 이번 호를 함께 만드느라 수고해 준 소수정예의... 편집위원들에게 수고 많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1년을 편집장으로 지내며, 이번 호를 쓰며, 문우의 원동력과 실행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욕심과 이상에 비해 나의 자질도 자원도 부족할까, 왜 일은 언제나 촉박하고 시끄럽게 처리되는가...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돌아켜보니 문우도 저도 여러 일들을 지나오며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지금이라는 시간에 도착했고요. 앞으로 우리네 단체에도, 각자의 삶에도 이래저래 힘든 일과 아쉬운 일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럴 때마다 큰 상처가 남지 않고 시간의 다음 장면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상처가 남더라도 상처투성이의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의 계속됨을 담보하니까요.

